

第146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5月19日(金)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現況報告(계속)
 - 가. 勤勞福祉公社
 - 나. 韓國海外開發公社
 - 다. 韓國勞動研究院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계속)
 - 가. 勤勞福祉公社 1面
 - 나. 韓國海外開發公社 1面
 - 다. 韓國勞動研究院 1面

(14時16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勞動委員會를 開議 하였습니다.

1. 現況報告(계속)
 - 가. 勤勞福祉公社
 - 나. 韓國海外開發公社
 - 다. 韓國勞動研究院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議事日程 順序에 따라 報告를 勤勞福祉公社 韓國海外開發公社 韓國勞動研究院 順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勤勞福祉公社社長 나오셔서 現況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勤勞福祉公社 社長입니다.

존경하는 勞動委員會 金令培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當 公社의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報告는 미리 委員님들께 나누어 드린 油印物에 따라서 今年度 5月1日 현재 기준으로 一般現況과 主要業務 推進實績의 順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油印物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 告)

一般現況

設立目的 및 主要事業

○設立目的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運營 産業保健에 關한 事業 및 勤勞者 福利厚生에 關한 事業遂行으로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期함.

○主要事業

- 産災患者 療養 管理

· 醫療·休養 및 關係施設

· 醫療再活·職業再活 및 關係施設

· 重障害勤勞者에 대한 作業施設

- 勤勞者의 産災豫防 및 健康管理

· 勤勞者 健康診斷 및 作業環境 測定

· 職業病 豫防과 治療를 위한 調查研究

- 産災勤勞者에 對한 生活安定 支援

· 身體障害勤勞者의 職業輔導

· 被災勤勞者 및 遺子女에 對한 支援

- 低所得 勤勞青少年 福祉 增進

· 勤勞青少年 貸貸아파트 建立

· 勤勞青少年 情緒涵養

- 勤勞福祉增進을 위한 調查研究 및 國際協力

機構 및 定員

○機 構

本社=3本部 4部 2室 18課
 傘下事務所
 -綜合醫療施設(4) 1,080病床
 -特殊醫療施設(3) 520 "
 -醫療再活施設(1) 300 "

-療·休養施設(1) 150病床
 -職業再活施設(1) 420 名
 -再活作業施設(1) 100 "
 -職業病研究所(1) -
 -賃貸아파트(5) 600世帯

○定員

(單位:名)

職種	計	任員 및 執行幹部	一般職	醫師職	研究職	醫療·藥務職	訓練 教師職	技術職	看護職	雇員職
人員	1,637	6	225	115	14	203	10	100	579	377

財務狀況

○資本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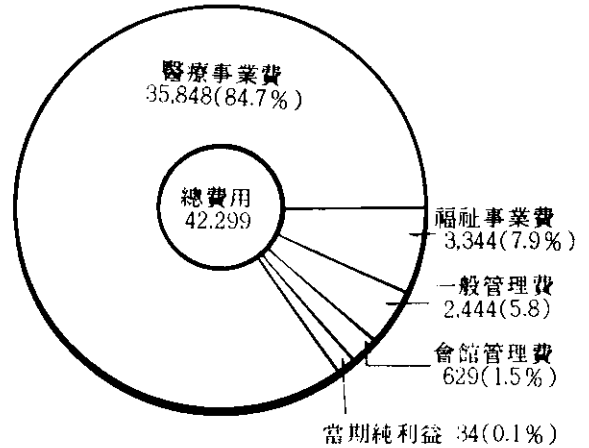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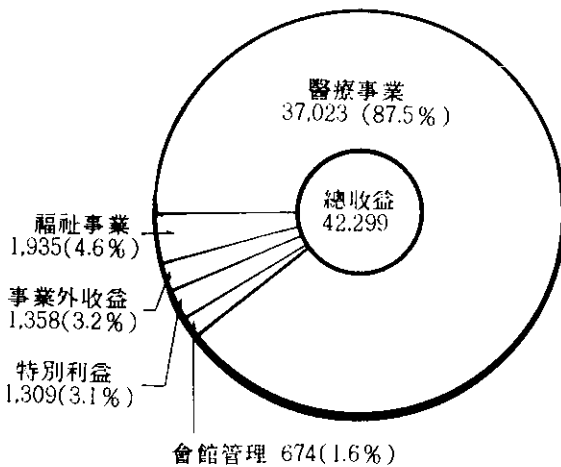
-法定資本金: 1,000億圓
 -納入資本金: 819億圓

○'89損益豫算

-收益豫算: 42,299百萬圓
 -費用豫算: 42,265 "
 -當期純利益: 34 "

※收益豫算(單位:百萬圓)

※費用豫算(單位:百萬圓)



主要業務推進實績(5月1日 現在)

'89主要業務推進計劃

基本目標

勞動者的 福祉增進



經營方針

○福祉社業 擴充

-國家福祉政策 受容 基盤 造成
 -受惠範圍의 擴大

○醫療의 特性化

-醫療의 專門性 提高
 -醫療裝備의 現代化

○責任經營制 定着

- 事業別 獨立採算制 運營
- 投資의 效率性 提高
- 全 管理者의 責任經營風土 造成

○對民 奉仕活動 強化

- 地域住民을 爲한 無料保健活動
- 親切奉仕姿勢 活性化

勤勞者 福祉增進

推進方向

- 産業災害勤勞者에 對한 生活安定支援 擴大
- 低所得 勤勞青少年 福祉施設 擴充

1. 災害勤勞者 生活定着金 貸付

○貸付財源 및 受惠對象 擴大

-財 源: $\frac{\text{'88}}{20\text{億원}} \rightarrow \frac{\text{'89}}{130\text{億원}}$

-對 象: 産災身體障害等級 5級→14級까지 擴大

○推進實績

區 分	單 位	計 劃	選 定	備 考
人 員	名	2,340	2,880	

※ 貸付實施中

2. 災害勤勞者子女 獎學金 支給

○獎學基金의 增大: $\frac{\text{'88}}{60\text{億원}} \rightarrow \frac{\text{'89}}{70\text{億원}}$

○推進實績

區 分	單 位	計 劃	實 績	進度(%)
計	名	2,250	2,188	97.2
中 學 生	"	550	554	100.7
高等學生	"	1,688	1,621	96.0
大 學 生	"	12	13	100.3

3. 勤勞青少年 賃貸아파트 建立 運營

○서울 九老아파트 4個地域 600世帶 運營

○建立計劃

(單位:百萬元)

地 域	世帶數	投資金額	推進實績	備 考
仁 川	200	2,631	工程82%	'89.7月完工豫定
春 川	120	1,867	敷地買入中	'90.5月 "

4. 身體障害勤勞者에 對한 支援強化

○職業再活訓練의 內實化

- 教育訓練時間 調整: 130時間→260時間
- 實技教育을 強化하여 職業適應 能力培養

○再活意慾 鼓吹

- 國家技術資格 取得支援 強化
- 作業員 技術投資 所有率 80%→90% 增大

-作業手當 現實化: $\frac{\text{'88}}{12\sim 18\text{萬원}} \rightarrow \frac{\text{'89}}{18\sim 22\text{萬원}}$

○推進實績

區 分	單 位	計 劃	實 績	進度(%)
職業再活訓練	名	420	119	28.3
保護雇用	"	100	62	62.0

醫療事業의 內實化

推進方向

- 診療水準의 向上
- 醫療서비스 增大

1. 産災患者 療養管理 水準向上

○醫療水準의 向上

- 專門醫療人力確保 및 最新裝備 補強
- 治療技法 向上을 위한 臨床研究의 活性化 推進(1人 1課題 賦課 臨床研究)
- 特殊클리닉 設置 運營(下半身麻痺 成人病等)

○醫療서비스 向上

- 患者 및 保護者에 對한 便宜施設 擴充
- 親切奉仕 實踐大會 開催
- 苦衷相談室 運營 內實化
- 零細勤勞者 및 地域住民에 對한 無料保健活動 展開

○患者 診療実績

區分	單位	計 劃	實 績	進度(%)
患者診療	延名	1,160,500	380,813	32.7
療・休養	"	49,275	15,036	30.5

2. 勤勞者健康診斷 及 作業環境測定

○檢診機能 補強 及 公共性 提高

- 專門優秀人力 及 檢診裝備 補強

- 勤勞者健康診斷 及 作業環境 測定時 勞組代表 立會 實施

- 診斷結果 個別 通報 及 疾病罹患者 療養管理 徹底

○推進実績

區分	單位	計 劃	實 績	進度(%)
勤勞者健康診斷	延名	186,900	23,465	12.6
作業環境測定	個所	715	237	33.1
塵肺精密診斷	名	2,600	936	36.0

3. 義肢 及 補助器 製作 技術 向上

○國際協力會 通社 先進技術 導入

- 專門要員 2名 日本國 研修(6個月)

- I.L.O 技術諮問官 招請 技術傳受

○國際義肢裝具聯合會 臺灣 日本等 義肢關聯機關 交流 強化

○推進実績

區分	單位	目 標	實 績	進度(%)
義肢補助器	件	840	121	14.4

4. 職業病研究所 設立 運營

○投資規模：511,482千圓

- 施設：332坪 65,232千圓(中央病院 施設改造)

- 裝備：57種 446,250千圓

○人 力：21名

○主要機能

- 塵肺研究室：職業性肺疾患の 診斷 治療 技法研究

- 産業保健研究室：重金屬 有機溶劑 中毒患者の 診斷 及 治療技法 研究

○開 所：89年4月18日

保險施設擴充

1. 大田産業再活院 建立

○機 能

- 醫療再活機能：5個 診療科(300病床)

- 職業再活機能：7個 訓練工科

- 産災義肢研究 製作機能：3個 研究室 義肢製作廠

○施設規模

- 空 地：32,443㎡(9,814坪)

- 建 物：20,582㎡(6,226坪)

○投資 及 工程計劃

(單位：百萬圓)

區分	計	'88	'89	'90	備 考
豫算	9,657	1,000	3,095	5,562	'91.3月
工程	100%	10%	25%	65%	開院 豫定

○推進內容

- '89.2.23 着工

- 空地造成 及 本館棟 基礎工事中

2. 光州再活業所 建立

○設立目的

- 急増する 重障者の 再活作業實施 擴充

- 身體機能恢復 及 殘存勞動力の 開發を 社會復歸 促進

○施設 及 收用規模

- 空 地：16,500㎡(4,991坪)

- 建 物：6,452㎡(1,952坪)

- 收容規模：50名

○投資 及 工程計劃

(單位：百萬圓)

區分	計	'88	'89	'90	備 考
豫算	5,166	2,517	1,614	1,035	'92.3月
工程	100%	10%	50%	40%	開院 豫定

○推進計劃

- '89年: 敷地買入 및 設計 完了(敷地選定中)
- '90年: 着工

이상으로 간단하게 當公社의 推進實績을 報告드리고 昨年度의 國政監査時의 지적사항에 대한 措置結果를 아울러 報告드리겠습니다. 醫療人力充員에 대해서는 醫師 7名등 總 53名의 醫療職을 充員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인력은 84名입니다마는 이 定員이라는 것은 당초 患者增加에 따라서 모든 病院이 「풀」가동시에 책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가동할 때에는 充員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災害勤勞者의 再活을 위한 施設 擴充方案을 이상 報告드린 대로 大田地域에 再活院과 光州地域에 作業所를 92年3月 90年3月 각각 開院 開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檢診時에 勤勞者代表를 立會하는데 대하여도 미리 報告드린 대로 檢診時에는 반드시 勞動組合의 代表者를 입회시키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勤勞福祉公社의 業務推進實績을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들어 가겠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中에서 政策事項은 勞動部長官이 해 주시고 實務事項은 福祉公社社長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民主正義黨의 金東仁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委員 災害者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의 件입니다.

災害勤勞者 子女獎學金 지급시 中학생의 경우 554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中學校까지는 義務教育을 시킬수 있는 水準으로 向上시킨다면 14級 申請者 全員에게 지급할수 있는 豫算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는 半月再活作業所의 경우에 作業員들이 영구적인 職場으로 생각하고 勤務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면 일정한 期間이 지나면 自動退所하고 다음 申請者로 交

代가 되는지... 왜냐 하면 作業手當을 12 내지 18萬원에서 18 내지 22萬원으로 現實化시킨다면 一般의으로 생각할 때 作業所를 퇴소하고 나면 그 정도의 收入을 얻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로 入所를 원하는 障礙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되어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作業環境 測定業務의 件입니다. 作業報告 12페이지를 보면 作業環境測定實績이 237件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韓國産業安全公團의 主業務가 事業場 安全診斷과 作業環境測定이므로 最近 各種 環境측정기기 導入에 상당한 豫算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業務를 두 機關에서 따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業務分野가 다른지 이 문제는 勤勞福祉公社에서는 塵肺 水銀 有機溶劑등을 취급하는지 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答辯하세요.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產災患者 子女에 대한... 中學生 高等學生 大學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報告드린 내용은 미리 報告드린 대로 定期的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定期支給獎學生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分期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신규 640名에 대한 未支給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中學生 高等學生 大學生 2,188名에 대해서 모두 1億1,300萬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定期分까지 합하면 約 2億원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번을 지급하게 되면 約 8億이 지급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財政運用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作業所 作業員에 대한 영구 직장 과 관련하여 作業手當引上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作業所 作業員의 지위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온 더 잡 트레이닝」(on the job training)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産業災害로 인한 장애자가 일단 치료종결이 되고 보상도 다 받은 상태에서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장애자이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政府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소위 作業能力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팜프렛」을 이용해서 희망자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入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개 2년의 「커리큘럼」과정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技能士補의 자격수준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여유를 두어서 만약에 2年 課程을 수료해도 技能士補의 과정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6個月 또는 1年 최대로 다시 2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2年을 실시해도 더 이상 資格證을 딸수 없다는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사회복귀로 집에 돌아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作業手當引上問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들어온 때에는 約 10萬원 내지 12萬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昨年度에 최소한 12萬원을 주기로 하고 技能士補의 자격을 따게 되면 대략 6個月 내지 1年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約 18萬원 정도를 지급해 왔으나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왕 자기들이 휴가를 맡아서 집에 돌아간다는가 또는 외출한다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勞賃이 아닌 所在中에 여러가지 수당 조를 저희들이 지급해 왔지만 그 중에 가족들이 딸리고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또 作業所 作業員들의 건의에 따라서 이빈에 현실화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技能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作業環境測定問題에 대해서는 産業安全管理公團에서는 주로 職業病에 관한 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에 대한 통보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職業病은 塵肺를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重金屬關係라든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職業病 이러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作業改善問題가 나오면 그 사항을 安全管理公團에 통보하고 勞動部에

報告를 해 드림으로 해서 措置結果가 이루어 지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고 安全公團에서는 현재 이러한 措置를 합과 동시에 또한 저희들이 못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海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瓊委員 平民黨 李海瓊입니다.

지금 業務報告에서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建立에 관해서 말씀이 제셨는데 현재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가 全國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0세대입니다.

그 외에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經營者團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약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5명이기 때문에 1萬2,500명정도 됩니다.

○李海瓊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勞動部 業務報告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近者에 들어서 地價上昇이라든가 아파트값上昇으로 인해서 勞動者들의 生計費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인 住居費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物價引上要因으로 住居費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物價引上은 바로 來年度 賃金引上要因으로 그대로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短期的인 政策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勤勞者들의 賃金引上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物價引上 특히 住居費의 몫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賃金引上의 몫이 住居費에 다 투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福祉公社에서 運營하는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의 취지는 물론 좋지만 이것이 勤勞者들의 住宅需要를 감당하기에는 전혀 의미있는 數字가 못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工團이 많이 생겨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既存工團도 많이 있고 특히 獨逸같은 데서도 産業社會 初期 進展過程에서 보면 원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勤勞者들의 集團居住를 위해서 처음부터 생겨나는 歷史的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工團을 만들면서도 이런 住居環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工團이 생겨남으로써 工團隣近에 아주 불량한 賃賃住宅 혹은 비둘기집 닭장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밀집하고 그것이 방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環境도 아주 나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彌縫的인 賃賃「아파트」 建立政策에서 工團을 建立하거나 既存의 工團에 勞動者들을 위한 永久賃賃「아파트」를 大量으로 지을 수 있어야만이 사실은 住居政策이자 그것이 勞動政策중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勞使紛糾에 있어서의 賃金上昇要因이 끊임없이 작용할 것이고 그런 疎外感과 剝脫感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爭議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近者에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관한 資料를 여러가지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大體의 으로 지난 5年間을 보면 實質賃金 引上分중의 約 7·80%가 住居保證金에 다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勞動部와 當會社에서 무슨 對策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저의 말씀드리는 취지를 가지고 政策的으로 政府內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政策的인 觀點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基本的으로 저희 勞動部에서는 지금 李海瓚委員님의 말씀하신대 대해서 同感을 하면서 현재 運營되고 있는 것은 600世帶고 앞으로 곧 運營될 320世帶를 포함해서 約 900世帶됩니다마는 이것을 漸次的으로 豫算을 확보하는 노력과 또 政府 안에서 部處間에 협조를 얻어서 확산해 나가야 되겠다는 基本的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具體的인 것은 福祉公社社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答辯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성실하게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賃賃「아파트」를 建立하는 과정에서 社長으로서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福祉公社에서 하는 賃賃「아파트」는 현재 低所得勤勞者 중에서도 未婚女性勤勞者입니다. 왜냐 하면 未婚女性勤勞者의 生活環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優先的으로 改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政府의 事業을 현재 受任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福祉公社의 本然의 任務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與件으로서 는 醫療事業으로서 黑字를 많이내서 相當할 같은 도저히 現實的으로 어려운 與件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國家의 豫算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파트」는 地方自治團體에서 貸地를 확보를 해주고 國庫補助가 建築費의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債主가 되어서 起債를 하고 이것을 建立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賃賃하고 있는 勤勞者들에게 實際的으로 管理費만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8,000원 保證金에 4,000원 밖에 받지를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世帶에 2萬원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현재 警備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行政「씨포트」하는 管理要員의 人件費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減價償却費라든가 退職金 充當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債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元利金償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經濟企劃院에다가 우선 昨年度에 기불한 利子分부터 시작해서 우선 심부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元利金을 企劃院에서 부담해 주십사 현재 豫算要求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結論的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政府에서 일단 基金을 저희들한테 주고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條件으로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與件에 놓여 있습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제가 한말씀만 더 質疑에 대한 答辯兼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福祉公社가 하는 것은 900餘世帶 기왕에 되어 있는 것 또 앞으로 入住가 될 것 합해서 되는데 전체 저희部 次元에서 81年度부터 88年度까지 約 5,220世帶를 建立을 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勞動委員會에서 추진을 해주셔서 2,000世帶의 「아파트」를 建立할 수 있는 豫算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2,000世帶分의 建立費 50%에 해당하는 經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地方自治團體나 또 「아파트」를 建立하려는 經營者團體라든지 이러한 데서 50%를 부담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垆地를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보아서 지금 工團周邊의 垆地값이 상당히 높이 올라있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나 또는 經營者團體에서 垆地 내놓고 建立費 5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2,000世帶의 建立費 50%의 建立資金은 가지고 있지마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基本的으로는 「아파트」를 지어서 勤勞者에게 惠澤을 주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現實的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에는 그렇게 된 것이지만 來年度부터는 勤勞靑少年賃貸「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垆地는 어렵지만 建立費만이라도 100% 支援해 주어야 그래도 여기에서 모처럼 어렵게 확보해 주신 豫算을 效率的으로 執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海瓊委員 취지는 잘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今年度에 얼마전에 國會에서 通過된 不良住宅改善特別措置法인가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大都市에 密集되어 있는 이른바 貧民地域 住宅改良을 위한 特別法인데 그 법에 보면 賃入者들의 永久賃貸住宅이 인근에 保障되어야만이 再開發事業을 許可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하면 上溪洞 木洞 舍堂洞 이런 데에서 賃入者들의 抵抗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移住金을 주어서 移轉시키는 쪽으로 政策이 執行이 되다가 住民들의 抵抗이 굉장히 거

세지니까 永久賃貸住宅 7坪 8坪 小型賃貸住宅을 지어서 受容할 수 있도록 하는 條件으로 再開發이 施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보면 國有地라든가 市有地가 있을 경우는 그것을 이용해서 國家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收用을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10年の 限時法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勞動者들이라고 꼭 工團近處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많이 살고... 그런데 이번에 一山이라든가 盆唐같은 地域에 짓는 「아파트」는 대개 中產層用「아파트」가 많이 지어 지는데 그쪽의 住宅政策은 建設部라든가 經濟企劃院에서 상당히 力點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실지로 勞動者들이 오히려 賃入者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動部側에서의 이런 部分에 대한 政策的인 접근은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判斷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都市貧民을 위한 永久賃貸住宅도 지금 法制化해서 義務化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局面에서 당연히 勞動部에서는 勤勞者들의 「아파트」... 이런 靑少年 未婚女性같은 사람들 이것은 居住「아파트」라기 보다는 일종의 寄宿舍예요. 해서 住居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勞動者를 위한 永久住宅정도... 제가 큰 坪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坪數 낮은 賃金을 가지고라도 떠돌이 生活를 안 하면서 安定된 勞動環境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생기는 工團에 있어서는 그것을 法律的으로 條件을 달아서 法制化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미 工團地域의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企業에게만 이 部分을 轉嫁시킨다든가 政府豫算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現實性이 없다 어렵다고 判斷됩니다. 그래서 저도에 관련된 部分을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가 政策的인 立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勞動部하고 勤勞福祉公園에서도 그런 視點에서 보다 이 문제에 관한 根本的인 接近方法이 나와야만이 長期的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勞動 1世代들은 그렇게 貧困地域에서 살면서 出退勤하고 工

團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제 勞動 2世代가 勞動人口로 많이 充員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留意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勤勞福祉公團하고 勞動部하고 共同으로 해당되는 事項인 데요.

蔚山에 있는 現代精工 勞動者 이오희라는 분이 지난 3月22日 死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月14日 特殊健康診斷을 받았을 적에 塵肺擬症으로 診斷이 나와서 療養申請과 作業轉換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提示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月11日 勞動部에다가 塵肺療養을 申請을 했었는데 勞動部에서는 諮問委員會 諮問을 받아서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다시 通報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月22日 죽었습니다. 제가 家族을 만나 보았는데 이 분이 일하던 場所가 鐵板을 切斷하는 部署인데 쇠파가 많이 날리는 事業場이었습니다. 常識으로 塵肺로 인한 사망이 상당히 높다고 判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 鑑定依頼書를 提出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意見書대로하면 “肺에서 各處에서 局所의으로 炭粉沈着所見을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作業環境이 그렇고 실지로 國立科學搜查研究所의 組織鑑定の 意見書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局所의으로 炭粉沈着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死亡診斷書에 보면 塵肺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心筋梗塞症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거의 아무런 産災患者로 處理도 못받았고 補償도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婦人도 만나보고 家族들도 만나 보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判斷하기에는 最終의인 死亡原因은 心腸麻痺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正常的으로 일하던 사람이 健康診斷에 療養申請과 作業轉換을 인정을 받았고 또 그로부터 불과 한달만에 죽었고 搜查研究所에서도 意見書에도 보면 炭粉沈着이 나오고 있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過勞로 인한 것이라고는 判斷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勞動部가 塵肺療

養을 신청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通報를 하는 根據는 무엇을 根據로 해서 判斷을 합니까?

該當局長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勞動保險局長입니다.

李海瓚委員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제가 具體的으로 調査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地方에서 다 이루어진 事項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調査를 못해 왔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調査를 해서 個別的으로 李海瓚委員님한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海瓚委員 지난번에 勞動部에 資料를 보내 드렸었는데요.

좋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지요 塵肺審査小委員會... 遺家族들 주장을 들어보면 本部 諮問醫師의 諮問所見에 따라서 處理가 됐다고 그러는데 諮問醫師중에 윤인중教授라는 분이 계십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예.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이 분이 判斷을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家族들 주장에 따르면... 本部에서 제공한 資料에 보면 諮問委員醫師중에서 윤인중教授라는 사람의 名單은 없습니다.

그래서 家族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현재 療養審査委員會안에 分科에 塵肺審議機構가 있는데 塵肺審議委員會에 현재 聖母病院에 勤務하고 계시는 윤인중博士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諮問醫에는 없습니다. 諮問醫는 各 地方事業所하고 사회 本部하고 해서 全體的으로 48名이 委囑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諮問醫로 委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塵肺委員會에 所屬되어 있는 醫師입니다.

○李海瓚委員 塵肺審査小委員會에 所屬돼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예.

○李海瓚委員 그런데 小委員會 資料를 보면 윤인중教授가 名單에 안들어 있어요. 勞動部에서 지한테 提出한 資料에 보면 塵肺審査小委員會가 김희섭 윤종섭 윤영균 김기호 이승한 정규철 이렇게 여섯 분인데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塵肺에 관한 規定이 지금 현재 塵肺豫防과 塵肺勤勞者保護에 관한 法律이 있어가지고 炭鑛에 있는 塵肺勤勞者에 대한 診療問題는 조금 전에 얘기한 法律에 의해서 措置하고 있고 그외에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鐵肺問題 그외의 다른 粉塵에서 일어나는 塵肺問題는 저희들 産災保險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인중教授는 저희 産災保險法에 의해서 塵肺를 다루는 塵肺委員會의 委員으로 저희들이 委囑을 해서 每週 水曜日인가 늘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면 이오희씨같은 경우에 最終的인 判定은 塵肺審査小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委員會가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예.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李海瓊委員**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가지고 이오희씨에 關連한 部分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全國産業災害者聯合會라는 團體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한테 온 建議文에 보면 義肢足 같은 경우를 平生에 두 번 支給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예.

○**李海瓊委員** 이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平生동안 두 번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적어도 2년에 1회정도 支給되어야 한다 이렇게 主張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關連한 것은 豫算問題도 있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常識的인 판단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의 경우 둘 아가지기 전까지 2회 支給하는 것하고 젊은 障礙者의 경우 2회 支給하는 것하고는 衡平上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部分에 關해서는 是正할 수 있는가 答辯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번째로는 이런 義肢나 義足같은 경우를 하려면 두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으로 支給되는 것이 아니고 仁川에 있는 再活訓練「센터」에 와서 製作을 해

야 되기 때문에 먼 地方에 있는 분들이 와서 滯留해 가면서 하는데 經濟的으로 負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住居地 隣近에서 할 수 있도록 改善해 달라 그런 얘기고 두번째로는 같은 障礙者인 경우인데 酬價를 보면 勞動部の 酬價하고 自動車保險의 酬價 一般酬價 報勳病院酬價를 보면 勞動部の 酬價가 현저하게 낮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의 主張에 따르면 허벅지를 잘린 障礙者가 使用하는 大腿義足の 경우 勞動部에서는 19萬3,000원을 算定하고 있는데 自動車保險은 33萬6,000원 報勳病院은 65萬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關계된 資料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같은 等級의 障礙일 경우 이렇게 國家에서 運營하는 경우 혹은 保險에서 運營하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差等이 심하다는 것은 是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우선 福祉公社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是正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義肢 義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義肢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申請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製作을 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保險酬價로서 저희들이 勞動部에 請求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問題에 대해서 李海瓊委員님 말씀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居住地爲主로 改善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義肢라는 것이 만드는 것이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材料問題라든가 또 만드는데 있어서 彈力性問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日本 臺灣 東南亞細亞 「인도네시아」이런 데가 오히려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報告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올렸습니다는 ILLO의 專門家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技術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義肢工場이 全國의 각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는 그러한 義肢廠에서 맞추면 우선 얼마 쓰다가 불편해서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平生에 두 번만 해 준다는 문제도 여러 審議委員會에서 정한 規定이기 때문에 勞動部에서 이것은 答辯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勞動保險局長입니다.

李海瓊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義肢의 取扱回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裝着部位別 義肢의 耐久年限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그 사람의 運動量과 그 裝着部位에 따라서 義肢가 壽命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規定上 한번 다치면 그 이후에 두번 支給해 주는 것으로 劃一化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됨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현재 이에 대한 耐久年限을 調査하고 또 그 사람 年齡에 비례한 規定을 改正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義肢를 裝着을 한다든가 그것을 修理하는데 꼭 再活病院에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 規定은 여러가지 距離上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거나 各地域마다 이것을 指定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同意를 하고 地方에 있는 個人이 지금 현재 運營을 하고 있는 義肢工場을 저희 政府가 指定을 해서 福祉公社이외의 다른 義肢廠에서도 우리 產災患者들에 대한 義肢를 수리하고 裝着을 해 줄 수 있도록 規定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빠른 時日內에 改正을 해서 勤勞者에게 불편이 없도록 措置하겠습니다.

다음에 義肢酬價에 관한 문제인데 義肢酬價는 저희들은 醫療保險酬價를 지금 活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報勤患者들에 대한 義肢酬價나 自動車 保險에서 支給하고 있는 義肢酬價하고 약간 다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保社部하고 協議하고 醫療酬價를 活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保社部하고도 協議를 해서 現價에 맞는 그런쪽으로 大幅 上向을 해서 調整을 하려고 하는 세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檢討하고 있다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李海瓊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4月9日 仁川市에 있는 흥업社 勤勞者

최완용씨가 焚身自殺을 했습니다. 이 분은 손가락이 4個가 切斷이 돼 가지고 中央病院 등으로 옮겨 달라는 遺書를 남긴채 4月6日 焚身自殺을 했습니다. 그런데 仁川에 있는 會社가 指定한 김인상整形外科에서 中央病院으로 옮겨지지 않아 가지고 절망끝에 自殺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本人들이 이렇게 中央病院으로 옮겨 달라고 要求를 해도 각 會社指定病院에서 안 옮겨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글세 저희들 福祉公社로서는 확실한 答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件에 대해서는 病院에서 本人의 의사에 따라서 警察官이 우리 中央病院 영안실로 移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實際的으로 靈安室은 病院에서 직접 經營하는 것이 아니고 委託經營을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產災患者이기 때문에 病院側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合意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제가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이런 경우는 실제로 會社가 指定하는 病院에 안가려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等級問題라든가 治療에서의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일텐데 지금 中央病院이 患者를 收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患者들이 물려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受益을 도모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公共福祉의 側面에서 產災患者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收益與否에 가리지 않고 入院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一般病院은 역시 個人의 利益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行爲診療가 수반되는 患者는 가능한 정도로 자기들의 入院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收益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中央病院은 언제든지 產災患者가 들어오면 받을 수 있도록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면 勞動部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仁川勞動廳에도 여러 차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本人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遺書에 보면 中央病院으로 옮겨주

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仁川 地方勞動廳에 확인 조사를 하셔서 經緯를 나중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五**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일괄해가지고 몇 가지만 質問 하겠습니다. 우선 職業再活院 運營에 관해서 報告하셨는데 첫째로 產災障害者는 一般障礙者와는 달리 產業一線에서 일하다가 다진 勤勞者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職業再活훈련 뿐만 아니라 訓練過程 履修후에 實質的인 雇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職業斡旋동 조치를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勤勞福祉公社에서는 職業再活教育이 끝나고 退所한 產災勤勞者들에게 職業斡旋을 위해서 어떤 施策을 펴고 있는지 이 점을 答辯해 주시고 또 현재 職業訓練을 마친 產災勤勞者들이 實質的으로 就業이 몇 % 정도나 되고 있는지 또 職業再活院의 職業教育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몇 % 정도가 實質的으로 職業再活院에 入所를 해서 教育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점을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職業病研究所를 今年 4月18日 開所한 것으로 報告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政府傘下機關에서 최초로 추진한 公式的인 職業病研究所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여기 主要機能을 보면 주로 事後的인 診斷이나 治療技法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職業病은 事前豫防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研究所에서도 勤勞者의 職業病을 早期에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技法을 연구하고 또 勤勞者들이 職業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弘報나 有害物質取扱 事業場別로 職業病 類型에 따른 勤勞者들의 自覺症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職業病에 罹患되고 있는지를 早期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體系的으로 弘報할 수 있는 方案 등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具體的으로 어떤 入力을 확보하고 있는

지 答辯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李仁濟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職業再活訓練은 사실 就業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7個 工科를 두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訓練對象은 身體障害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就業斡旋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의 改善策으로서 어떠한 製作品에 대한 展示會를 한다든가 또한 展示會를 하면서 購買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을 製作者들에게 通帳를 통해서 貯蓄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分配方式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訓練生 스스로가 보다 積極的인 의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訓練도 보다 積極的인 誠意를 가지고 함으로서 왕왕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工場으로부터 使用者를 招請을 해서 그 訓練過程을 見學을 시킨다든가 함으로써 저 정도의 作業能力이 있으면 우리 會社에서 데려 가겠다 이런 것과 아울러 저희들 나름대로는 「팜플렛」을 통해서 弘報를 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는 制度的인 장치로써 勞動部에서는 全國의 職業安定所에 이런 것들을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雇傭促進法이 이루어지면 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就業이 된 사람은 今年度에 와서 다섯名 直營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해서 職業再活訓練에서 8名이 社會復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作業所의 保護雇傭面에서는 한 사람이 겨우 就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再活院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職業再活訓練에 몇 %나 訓練을 받고 있느냐 하는 質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의 가능성만 있으면 사실 再活醫學科 專門醫로 하여금 판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도록 많은 勸告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들이 사실상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事例같은 것도 저희가 발표를 해 나가고 製

作物의 展示會때에는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도 이러한 좋은 물건을 내고 여기에 대한 利益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團體로 인솔 見學도 시키고 이런 등등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韓光玉幹事,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職業病研究所에 대한 設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研究員로서는 首席研究員이 세 사람의 T/O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명이 확보되어 있고 責任研究員은 네 사람중에서 세명 研究員은 다섯 명중에서 두사람 醫務職은 아직까지 한 명도 採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희망자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職業病研究所는 정말 어떠한 결과에 대한 診斷이나 발표를 할 때에는 權威있는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人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職業病研究所로 하여금 현재 美國과도 姊妹結緣을 맺어서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그쪽으로 移送를 해서 다시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결과가 확신이 있을 때에 발표하는 등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事後보다도 事前研究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研究所의 현재 여건이나 실정으로서는 지금 罹患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보다 進行이 안되느냐 또 앞으로 이러한 職業病患者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作業環境을 어느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作業環境 測定問題라든가 또 이것이 職業病이나 아니냐하는 是非에 대한 판단 이런 것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中央病院에 附設이 되어있었다마는 앞으로 職業病이 많이 나타나고 또 工業分野가 더 확대됨에 따라서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獨自의으로 독립된 研究所를 만들고... 外國의 예도 대개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고 漸次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다음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炳龍委員 9「페이지」에 靑少年 아파트 建立 運營 이것은 福祉公社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600世帶를 運營하는 것으로 現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福祉公社次元보다는 政府的인 次元 또는 勞動部次元에서 靑少年 貨賃아파트라는 것은 部分的으로 靑少年들을 위해서 政府가 그나마 워 좀 해 준다하는 하나의 표시지 全國의 勤勞者가 몇 100萬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부분을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勤勞者 庶民들에게 小型「아파트」를 政府가 많이 건설해서... 庶民 또는 勤勞者들이 자기 집 갖는 것이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욕망이요 또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政府에서도 지금 200萬世帶를 앞으로 建立하겠다하는 方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勤勞者 庶民들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永久貨賃「아파트」 또는 普通 貨賃아파트 이렇게 몇 가지의 等級으로 해서 政府가 적어도 수백만 채를 지어서 勤勞者 또는 庶民들에게 뭔가 그러한 내집마련을 集中的으로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政府의 政策도 그렇고 勞動部로서도 勤勞者福祉 또는 社會福祉를 위해서도 勞動部나 政府나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勞動部로서는 政府에 강력하게 勤勞者들의 永久貨賃「아파트」를 건립해 줘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建議를 해서 적어도 많은 勤勞者들이 내집을 가졌을 때에 우선 자기 생활이 안정되고 자기 생활이 안정되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會社 또는 그 事業場에 가서도 마음의 安定이 되기 때문에 產業의 平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政府的인 次元 또는 勞動部 次元에서 政府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勤勞者 庶民들의 「아파트」를 많이 建立하도록 촉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政府나 福祉公社에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答辯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저희 勞動部 입장에서 金炳龍委員의 말씀에 原則적으로 同意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政策的인 檢討를 積極的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는 關係部處와도 필요하다면 協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永久賃貸「아파트」를 서울주변에 政府에서 3,200世帯를 짓습니다. 着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가서 주위에 있는 市民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贊成이에요. 가진 사람도 贊成이고 없는 사람도 이것은 贊成입니다. 가진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永久賃貸「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 준다면 참 좋다 또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이제는 내 돈 적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구히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이 된다는 데에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李海瓚委員이 확실한 얘기했습니다.

盆唐이나 一山에 그런 中産層들의 「아파트」를 짓고 하나의 大型都市로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주변의 周邊都市에 얼마든지 庶民「아파트」를 지어서 또 서울주변에 지으면 隣近都市 衛星都市에서 서울에 出退勤할 수 있고 서울 衛星都市들에 전부 다 그러한 會社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명 100萬名 정도의 勤勞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아파트」를 많이 政府가 보금을 하면 政府는 당연히 할 일을 하게 되고 勤勞者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一山같은 경우에는 中産層 「아파트」를 35坪以上하면... 지금 30坪 40坪以上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의 집 셋방사는 사람들에게 永久賃貸「아파트」를 마련해주어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는 希望을 갖게 하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國家에 대한 불만이나 社會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는데 이러한 것을 積極 政府가 장려할 수 있도록 勞動部에서는 강력히 政府에 촉구할 하고 이와같은 建設業에 대해서는 주로 建設部가 다 主導的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基本的으로 그러한 建設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目的이 뭐냐? 永久賃貸「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勤勞者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意見

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러한 庶民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政府에서나 또는 勞動部에서는 政府에 좀 더 심도있게 강력하게 建議을 해서 勞動部の 意見이 政府次元에서 反映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알겠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產災審査委員會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委員會의 審査基準에 따라서 等級을 判定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再審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再審을 요청했을 때에는 書類審査에서 끝내고 그냥 거기에 기각시켜 버리는 이런 예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이 마련되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어제 金炳龍委員님께서 質問하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產災保險 給與에 대한 審査處理는 一線 勞動官署에서 主治醫의 精確한 障礙診斷과 諮問 醫師의 直接確認에 따라 行하여지는 處分에 異議가 있는지에 대하여 行해지는 行政救濟 制度로서 主治醫의 所見과 地方勞動關署의 諮問 醫師 所見 本部諮問 醫師 所見 그리고 審査官이나 審査委員會의 意見에 일치하고 醫學的으로 確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同請求人이 出席하는 불원들을 생각해서 書面審査로 지금 處理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醫學的 所見등이 不一致할 경우에는 本人을 직접 出席하도록 해서 直接陳述 特診鑑定을 의뢰해서 이를 기초로 處理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습니다.

그 制度自體가 本人 생각으로는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新聞紙上에도 發表된 일이 있고 직접 本委員이 醫師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모든 診斷의 결과는 70% 내지 80%가 誤診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常識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배속 어디가 아픈데 어떤 病院에 가면 위장이 나쁘다 하는데 다른 곳에는 肝이 나쁘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

오기 때문에 誤診이 約 70% 내지 8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身體上 產災를 입은 사람은 속에서 病이 생긴 것도 있지만 무엇을 하다가 잘 못 해가지고 큰 病이 속으로 타박상을 입어서 걸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醫師로서의 확실한 診斷을 해주어야 되고 再審을 요청했을 때는 本人의 意見을 들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勤勞者가 醫師에 대한 무슨 常識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陳情하는 데에 대한 무슨 常識이 있습니까?

本人 혼자만 끔끔 앓고 있는거예요.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政府의 補償이나 產災에 대한 措置가 신통치 않으니 자기 돈으로 治療를 받고 수백만원 損害를 보았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勞動部로서는 어떻게 措置하고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양해해 주신다면 擔當局長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저희들도 行政官의 입장에서는 醫學的인 所見에 대해서 醫師들의 얘기를 듣고 判定을 합니다.

물론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醫師들이라고 해서 100%를 정확한 診斷을 할 수 없다는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現在 3審制度를 活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擔當者에게 미흡한 措置인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조금前 次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醫師를 地方事務所에 諮問醫를 두고 있고 本部에 諮問醫를 두고 있고 또 그 분은 諮問醫에 오기 前에... 病院에는 主治醫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診斷을 받아오면 우리 諮問醫가 직접 患者를 만나 확인해서 主治醫와 諮問醫의 意見一致가 되면 判定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異議가 있을 경우 救濟制度로서 本部에 審査要求를 하고 있는데 本部로서는 모든 患者 모든 請求人을 전부 出席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에서의 診療書하고 本部가 活用하고 있는 諮問醫의 醫學的인 所見이 다를 경우에는 第3의 機關에다가 그 患者를 보내가지고 鑑定을 시키는 制度를 活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不服했을 경우에는 民事에 의한 救濟制度가 있습니다마는 本人이 직접 第3의 機關에 가지고 診斷書를 받아왔을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때 들어간 費用은 誤判이라고 하는 確證이 있을 때는 解決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물론 公式적으로는 다 그렇게 答辯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되지요.

그런데 실제 行政官廳에서 그 患者들을 접견을 해서 모든 문제를 處理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患者는 그런데 대한 常識이 없습니다.

또 行政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특히 產災 같은 경우는 피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病든 것이기 때문에 속에 어떤 病이 들었는지 취급하는 官署의 擔當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結果的으로는 理論的으로 그 患者가 감당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자기가 棄權하는 例가 많이 있습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나라의 現在 障礙等級 判定基準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다른 先進國에서는 活用되지 않고 日本이 活用했던 오래前의 制度가 그대로 活用되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體型에 맞는 그런 勞動力이 喪失度를 측정할 수 있는 方法을 현재 用役을 주어서 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왼손잡이가 왼손을 다친 경우와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다친 경우는 勞動力의 喪失度는 다릅니다.

勞動部가 活用하고 있는 判定基準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모든 矛盾이 그렇게 行政官의 입장으로서 쉽게 改正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專門家를 活用해야 할 처지에 있어서 用役을 주어서 빠른 尺度를 마련하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것은 살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신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고 또 再審을 요청하니

까 너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再審을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診斷을 받는 과정이 골치아픈 모양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苦衷을 患者에게 또 주게 되니까 棄權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政府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患者의 입장에 서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正堂堂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治療費를 받는 方向으로 政府가 해주어야 하는데 法の原則만 따라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審判하는 사람이 判定하는 사람이 일일이 患者를 데려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書類上으로만 보고 判定하는데 소위 醫師들이 自尊心이 얼마나 강합니까? 誤診했다고 할 수는 없다 棄却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앞으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주의깊게 處理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이 문제는 좀 더 研究를 지도 할 것이고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마는 勞動部에서도 좀더 研究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盧仁煥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平和民主黨所屬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韓光玉委員**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災害勤勞者에 대한 生活 定着金을 貸付한다는 事項이 있습니다.

이 貸付限度額이 얼마입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擔保貸付가 500萬원 信用貸付가 3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면 만약에 災害勤勞者가 擔保를 할 수 없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예. 現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지금 保證人關係는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災害勤勞者가 保證을 세울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할 경

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陳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그 信用貸出 300萬원 이것을 좀 더 늘리는 方向으로 檢討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農協中央會에 수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基金管理 自體를 農協中央會하고 契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部分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도 수차 會長하고 幹部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保證人 立保에 대해 納稅額 1萬원까지를 6,000원까지로 완화를 一次的으로 시켰습니다.

그 外에는 계속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基金管理를 하는 과정에서 缺損이 나오게 되면 農協中央會가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部分을 좀 더 具體的으로 저희가 檢討를 하고 그쪽에서도 檢討를 해서 다시 얘기를 더 해 보고자 합니다.

例를 들면 지난 번에 저희가 그런 建議를 했습니다.

大韓石炭公社에 勤續하고 있는 5年以上 勤續한 사람이라면 退職金關係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2人정도 立保를 하면 해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事實上 그것은 法律上으로 그 退職金은 差押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또 退職當時 찾아갈 때에 그 관제를 理由삼아서 會社에서 그것을 안해 주면 실제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公文도 저희들이 받았고 저희들이 실제로 듣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經濟企劃院에서 어느 정도의 缺損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制度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事實上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災害勤勞者들에 대한 福祉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當局에서 政策立案할 때 次元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人道的인 측면에서 福祉國家를 建設하는 측면에서 참으로 도와주는 어느 의미에서는 勞動을 대가로 한다든지 추후에 그런 勞動代價에 賃金이라는 그런 次元에서 볼 것이 아니라 또 그런 福祉政策의 次元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文字 그대로 福祉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勞動者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림의 떡”의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方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남들도 다하는 것이니까 좀 이런 어려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 建立問題하고 이것은 本委員도 지난 번 豫決委에 參與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라는 지금 現在 이것은 國家的으로 全面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萬戶 建立計劃이 있고 또 20萬戶 賃貸住宅建立 이런 것이 여러 個가 있는데 또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計劃등 그래서 여러 군데에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統轄해 가지고 어느 部處에 모아서 勞動部면 勞動部 建設部면 建設部 經濟企劃院이면 經濟企劃院 全體의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住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分野別로 勤勞者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렇게 해 주어야지 勞動部에서 하는 것 다르고 建設部에서 하는 것 다르고 이것 根本的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答辯하실 수가 없는 것이니까 國務會議같은 데에서 議案上程으로 올리든지 여러가지 對策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8,000원을 保證金으로 받고 있고 4,000원을 賃貸料로 받고 있는데 그 자체는 적자지요?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그렇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런 것도 모순이요. 이것이 赤字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赤

字를 어떻게 메꿔나갈 거예요. 현상유지는 돼야죠. 根本的으로 靑少年賃貸「아파트」 建立計劃에 대해서는 綜合的인計劃이 수립돼야겠고 현재 있는 「아파트」도 현상유지가 되고 그러므로써 勤勞者에게 實益이 가는 對策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作業環境을 測定하는 機關이 지금 몇 個나 있고 그에 대한 公信力에 대해서 한번 檢討해 보셨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현재 作業環境 測定은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塵肺研究所가 원래 東海病院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塵肺를 중심으로 해서 職業病 研究를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자연히 鑛山 중심으로 해서 作業環境 測定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번에 中央病院의 附設로 職業病研究所를 設立해서 重金屬 문제라든가 이런 현재 나오고 있는 職業病같은 것을 치중해서 環境測定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産業安全公園에서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計劃에 의해 環境測定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모든 職業病이라든지 여러가지 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勤勞者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건강에 훼손이 가는데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病이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藥을 써 준들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勤勞者들이 사전에 건강한 作業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制度的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勤勞者들이 자기 作業場에 가서 마음놓고 일하고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저희 나름대로 가끔 作業場같은데를 가보게 되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연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저희가 보통 인내를 하지 않고서는 그 作業場을 돌아볼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病이 나지 않도록 作業環境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作業環境을 수시로 定期的으로 檢査를 합과 동시에 作業環境의 測定機關은 公信力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檢査가 돼서는 안되고 또 현재 經費는 會社側에서 대고 있죠!

○**勤勞福社公社長 沈大燮** 예, 그렇습니다.

○**韓光玉委員 勞組幹部**가 물론 거기 참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會社側에서 經費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形式的인 檢査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形式的인 作業環境 測定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副作用도 사전에 예방하는 對策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質疑를 마칠까 합니다만 勞動部次官께 묻겠는데요. 제가 어제 質問한 것중에 손가락 절단된 사람들을 接合手術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소위 產災保險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不當하다는 얘기를 어제 충분히 했는데 그래서 오늘 答辯은 그것이 不當하기 때문에 產災保險 대상에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答辯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李龍俊** 현재 手指接合手術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위의 다시 말해서 발가락을 절단해서 손가락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부위의 일부를 절단해서 行하는 接合手術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애를 유발함은 물론 接合手術이 완전하게 그 기능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애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인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절단해서 接合手術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副作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정이 안되고 그 문제는 專門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專門醫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檢討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韓光玉委員 專門醫**들하고 진지하게 檢討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答辯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데 本委員 생각으로는 手指接合은 가능하지만 他部位에서 移植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 하다 새로운 장애가 촉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발가락을 손에 移植手術을 했다 그런데 발가락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할 적에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檢討하셔서 本委員 생각은 그런 문제도 역시 產災保險 대상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檢討하셔서 다음 國會 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勤勞福社公社의 現況報告와 이에 대한 質疑를 모두 마칩니다.

場內整理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3分 會議中止)

(16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韓國海外開發公社의 現況報告를 듣겠습니다.

海外開發公社 社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海外開發公社 全潤壽社長입니다.

먼저 國家發展을 위해서 勞心焦思하고 계시는 委員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公社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目次

○一般現況

-沿革

-設立目的 및 主要事業

-機構 및 定員

○'89主要事業推進實績

-基本目標 및 施策

-事業推進現況

○主要當面課題

-公社機能調整推進

-國庫補助金 增額支援

-海外財產管理對策

-海外開發基金 造成

(參照)

一般現況

- 1965.11.3 財團法人 韓國海外開發公社 發足
- 1975.12.31 韓國海外開發公社法 公布
(法律 第2856號)
- 1976. 4.20 韓國海外開發公社(政府投資機關)發足
- 1983.12.31 韓國海外開發公社法 改正
·義務監督 主務部處 變更
(保健社會部→勞動部 海外移住宅 外務部)

設立目的 及 主要事業

○設立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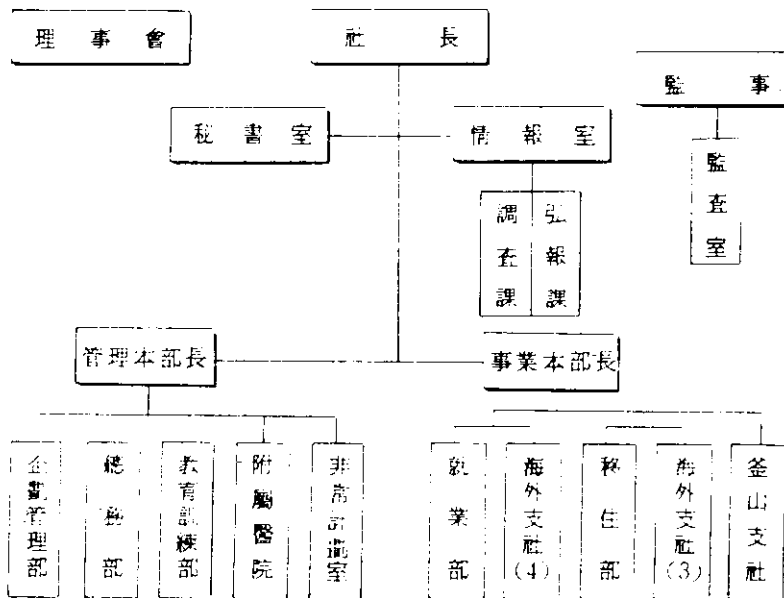
- 海外 人力進出 擴大
- 國內職業安定 及 國家經濟社會 發展
- 國際協力 增進

○主要事業

- 海外就業事業
- 海外移住事業
- 調查研究事業
- 附帶事業(教育訓練 身體檢查 旅行事業)

機構 及 定員

機 構



本社	2 本部長 4 室 6 部 16 課
支社	國內 1 支社 2 課
	海外 7 支社

○定員

區分	計	任員	社 員							
			本部長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6 級	技能職
定員	197	2	2	6	23	42	46	24	27	25

'89主要事業推進實績

基本目標

經營改善 및 機能調整

基本施策

- 長期的 海外進出 基盤造成
 - 進出地域의 多邊化
 - 調查研究事業의 內實化

○責任 經營制의 定着

- 事業單位別 責任經營制
- 創意力 鼓吹와 經營管理技法 改善

○對民서비스 向上

- 奉仕하는 公企業像 確立
- 進出人力의 事後管理 徹底

○公社機能의 合理的 改編

- 國際協力事業 領域 擴大
- 新事業 遂行 基盤 構築

事業推進現況

1. 海外就業

가. 事後實績

(4.30現在 名)

區 分	最 近 5 個 年 實 績					'89			備 考
	'84	'85	'86	'87	'88	目 標	實 績	%	
計	3637	4,097	4,541	4,043	3,638	3,740	890	24	基準
團體就業	2,393	2,625	3,115	2,239	2,294	2,340	703	30	目標
個別就業	1,244	1,472	1,426	1,804	1,344	1,400	187	13	33%

나. 事業與件

- 中東 景氣沈滯로 人力需要 減少
- 國內賃金 上昇 및 元貨切上으로 國際競爭力 弱화
- 民間과 競合하여 公企業으로 信賴度 低下

다. 推進方向

- 我國 人力進出에 有利한 市場 重點 開拓
 - 日本 「關」地域

○第3國 人力對備 競爭力있는 技術集約職 種 進出推進

- 航空整備 船舶修理 電子通信技術者

○政府間 協力事業 強化

- 「사우더」보건성 醫療要員 國防省 軍施設運營要員 「싱가폴」 國防省 軍施設建設要員

○海外就業者에 대한 政府支援 擴大

2. 海外移住

가. 事業實績

(4.30現在, 世帶)

區 分	最 近 5 個 年 實 績					'89			備 考
	'84	'85	'86	'87	'88	目 標	實 績	%	
計	2,460	2,220	3,420	3,046	2,825	3,110	895	29	基準
斡旋移住	71	121	170	328	337	360	127	35	目標
緣故移住	2,389	2,099	3,250	2,718	2,488	2,750	768	28	33%

나. 事業與件

- 低所得 單純技能 移住는 受民國에서 際限
- 受民國은 自國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投資移住 選好
- 國內 經濟與件 好轉에 따라 逆移民 現象 增加趨勢

다. 推進方向

- 政府 主導 計劃投資移住 開發
- 카나다 南美 濠洲 等 移住 選好地域 進出 및 事後管理
- 移住者에 對한 政府支援 擴大

3. 附帶事業

가. 事業實績

(4.30 現在 名)

區 分	最 近 5 個 年 實 績					'89			備 考
	'84	'85	'86	'87	'88	目 標	實 績	%	
計	202,875	147,990	111,028	102,849	83,358	96,900	25,830	27	
教育訓練	99,704	67,346	53,430	54,054	42,858	50,400	13,090	26	基準
身體檢查	99,846	76,049	52,514	41,384	33,190	40,000	9,790	25	目標
旅行事業	3,326	4,595	5,084	7,411	7,310	6,500	2,950	45	33%

나. 事業與件

- 海外就業 및 移住減少로 附帶事業 實績 減少
- 海外旅行 自由化로 個別就業 機會 增加

다. 推進方向

- 海外進出者에 對한 事前準備教育 強化
- 對民 서비스 向上

4. 結 論

海外人力 需要 減少와 國民生活 水準 向上에 따른 海外進出 選好度 人力進出 事業推進의 諸般與件이 惡化되고 있고 公社 經營 狀態는 自救努力에도 불구하고 限界에 到達.

5. 對 策

- 國家的 相互 互惠의인 次元에서 人力進出을 推進
 - 海外 人力進出事業은 長期的이고 計劃的으로 投資하고 社會政策的 次元에서 政府財政支援으로 推進
- 主要當面課題

公社機能 調整推進

1. 機能調整 推進 背景

- '87.5月: 當公社 機能調整 對象機關으로 確定(經濟企劃院)
- '89.3月: 公社 機能調整(案) 提出
- '89.4月: 公社 機能調整 細部施行 計劃(案) 提出 意見調整中

2. 機能調整의 必要性

- 海外 勞動市場 與件 惡化로 人力 需要 減少
- 賃金引上 및 元貨切上으로 國際競爭力 弱화
- 海外人力 進出事業은 企業의 收益性보다 國民福祉 次元에서 施行要求
- 國家 經濟發展에 相應한 國際役割 要求가 漸增

3. 機能調整 方案

- 現行 海外人力 送出 業務를 遂行하면서 國際協力事務局 受任
- 國際協力 業務를 段階的으로 受任하되
 - 第1段階는 各 部處에 散在한 技術協力 業務를 統合하고
- 第2段階는 經濟協力業務를 包含한 諸般 國際協力 業務를 擔當

○公社의 法人體制는 政府投資機關에서 出捐機關(假稱 “海外開發協力事業團”)으로 轉換

○國際協力 事業遂行에 必要한 人員과 施設은 公社의 現人員과 施設을 最大로 活用하여 豫算節減

*國際協力 事業 現況

區 分	內 容
主 管 機 關	勞動部 等 5個 部處
主 要 事 業	訓練生招請 專門家派遣 開發調查 等
豫 算 規 模	76億원

4. 結 論

많은 人員과 豫算이 所要되는 國際協力 事業 專擔機構 新設보다는 韓國海外開發公社를 根幹으로 해서 人力 送出事業을 보다 効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機能을 調整

5. 期待效果

- 政府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國際協力事業을 一元化하여 一貫性있게 計劃 調整 執行 可能
- 國際協力 및 人力送出에 對한 政策樹立과 執行機能을 分離함으로써 事業의 效率性 專門性 提高

○公益機關의 機能調整으로 國民福祉 및 便益增大

國庫補助 增額支援

1. 必要性

- 海外進出 人力에 對한 權益擁護와 福祉次元에서 國家施惠擴大
- 海外人力 送出事業은 企業의 受益次元에서 國家의 長期人力 受給 및 國內職業安定 次元으로 轉換
- 政府베이스의 投資移住 및 海外協力事業 要求 增大

2. 國庫補助金 內譯

(單位：백만원)

區 分	項 目	'89國庫豫算	'90要求豫算	備 考
海 外 就 業 事 業 費	小 計	868	2,166	勞 動 部 豫 算
	人 件 費	317	878	
	經 常 費	234	775	
	市 場 開 拓 費	317	513	
海 外 移 住 事 業 費	小 計	880	2,196	外 務 部 豫 算
	人 件 費	216	317	
	經 常 費	20	520	
	市 場 開 拓 費	207	336	
	計 劃 移 住 事 業 費	437	1,023	
計		1,748	4,362	

3. 期待效果

- 低所得 海外進出 勤勞者에 대한 權益擁護 및 福祉增大
- 長期人力 需給 및 國內職業安定 寄與
- 海外市場 領域擴大 및 國際協力 增進 海外財産管理對策

1. 必要性

- '62年 海外移住法 制定以後 南美農業移住 農場 購入過程에서 經濟性 營農性 現地適應能力等 事前調査 缺如로 遊休農場 發生
- 遊休農場에 對한 持續的인 管理로 豫算 및 人力 浪費

2. 農場現況

國名	農場名	購入年度	面積(萬坪)	土地代(천\$)	移住實績(世帶)	現實態
아르헨티나	산하비에르	'81.3	800	1,912	12	2世帶營農中
	루항	'71.3	3.3	19	9	2世帶營農中
	얏사마우까	'78.8	6,300	2,115	-	奧地로遊休狀態
칠레	테도	'80.12	56	533	-	現地人에게賃貸
파라과이	삼베드로	'68.4	450	12	28	3世帶營農中
計	3個國 5個農場		7,609	4,591	50	

3. 對策

- 遊休農場은 賣却
- 賃貸農場은 拂下
- 拂下 및 賣却代金은 海外開發 基金으로 活用

4. 期待效果

- 海外 遊休農場管理에 所要되는 人員 豫算 節減
- 海外開發基金 造成으로 政府베이스 投資移住 事業資金 活用

(報告中斷)

○李海瓊委員 13「페이지」에 「얏다마우까」農場이 지금 내놓으면 팔 수 있습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저희가 애초 구입했던 금액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政策的인 차원에서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現地鑑定을 의뢰한 결과 20萬弗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200萬佛에 사 20萬佛에 팔 수 있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令培 管理費는 안들어가고 있어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每年 13萬5,000

弗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定期的인 측면에서는 돈을 회수해서 活用해 가지고 人力關係라든가 移住에 적절히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政府에 건의드릴 바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거기에 맞는 農事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내보내면 안 되나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애당초 그럴 목적으로 샀습니다마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農事에 대해서 전혀 經驗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번 여기에서 農事를 지을수 있는 사람을 求人活動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農場의 상태가 農事를 짓는데 적합하지 않은 土質이 문제가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니까 農事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구입했군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못했습니다마는 報告받기에는 農事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報告받고 있습니다.

- 李海瓊委員 처음에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65年度の 일이기 때문에 保社部에서...
- 李海瓊委員 당시에 땅을 산 責任者가 있을 것 아닙니까? 關係部署 이름하고 關係者들 名單을 제출해 주십시오.
-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海外開發基金造成

- 1. 海外移住 融資金 國庫支援 現況 (單位:百萬元)

區分	'84	'85	'86	'87	'88	'89	計
豫算	480	240	442	374	422	422	2,380
執行	480	240	442	429	422	210	2,223

2. 必要性

- 政府主導 計劃移住 事業基金 不足
- 進出된 海外僑胞 事後管理基金 不足

3. 對策

- 造成目標:100億원
- 造成方法

(單位:百萬元)

區分	財源別	金額
自體財源 (既確保)	海外移住者 融資金	2,380
	海外農場 賣却代金	1,330
政府財源 (추가調達)	國庫補助金	6,320
計		10,000

4. 活用方案

- 政府主導 計劃投資 移住事業基金
 - 中小企業 및 特殊營農 移住
- 海外進出 僑胞 事後管理
 - 移住定着失敗者 長期低利 貸付 및 再定着 支援

5. 期待效果

- 一貫性있게 長期 計劃移住 可能
- 海外移住者 早期 定着 支援
- 海外移住事業 漸進的 擴散

이상 韓國海外開發公社 報告를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報告가 끝났으므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平和民主黨所屬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報告를 들으면서 本委員의 느낌은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또 여러가지 國內에서 소화시키지 못한 人力을 海外에 移住 또는 就業을 시킴으로써 就業人口가 늘어나고 또 勞動對策의 일환으로서 대단히 유익한 機關이고 또 國土로 보아서 그만큼 海外에 많이 나가게 되면 땅이 넓어지는 海外開發公社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實績이라든가 또는 報告를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人體에 비유하면 맹장에 해당하는 機構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새로 오신 社長께서는 이것이 本委員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니고 一般的인 시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꼭 이 機構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機構가 國家開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自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海外開發公社의 豫算은 國庫補助와 海外就業者들에 대한 斡旋料 및 附帶事業으로 運營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海外就業市場의 國際競爭力이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에서 海外就業者를 海外에 進出시키는데 있어서 주로 영세한 就業者가 나가게 되는데 이들에게서 받는 斡旋料라는 것이 있는데 斡旋料를 받아가면서 海外에 送出시켜야 되겠는가 또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89年度 國庫補助가 約 17億정도 되고 斡旋料로 自體充當을 할 수 있는 것이 22億이 되는데 오히려 斡旋料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어려운 勞動者들이 무거운 斡旋料때문에 또 斡旋料가 상당히 여러가지 項目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런것 때문에 오히려 海外就業를 못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또 사실 그런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조금 전에 當面課題로서 報告를 올렸던 바와 같이 현

재 저희 公社의 財源은 國庫 17億5,000 나
머지 22億은 自體收益으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赴任을 해서 이 公社가 公益機關으
로서 零細勤勞者로부터 호주머니 돈을 받아
가지고 公益機關이 運營한다는 것은 여러가
지 次元에서 명분이 희박하다라고 느껴서
公社의 位相을 再定立시키고 변신시키는 方
案을 檢討를 해서 勞動部와 外務部에 建議
드려서 지금 현재 檢討중에 있습니다.

저도 零細勤勞者에 대해서 받는 것은 現
時點으로서는 맞지 않는 政策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4,000弗
내지 5,000弗 때는 모든 就業問題는 國家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ILO精神에도
이것은 國家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精神으로 보아서 언젠가는 이 문제는 政策
次元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현재 就業對象者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待機人員은
勞動部 國立中央職業安定所에서 登錄되어
있는 資源이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海外開發公社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양해해 주신
다면 勞動部職業訓練課장이 와 계시기 때문
에 資料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3萬2,000名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3萬2,000名이 海外就業을 기다리
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數字가 아닌데 이
많은 數字에 대한 計劃은... 대기하고 있는
就業對象人口에 대해서 어떻게 對策을 강구
하고 있나요? 特別對策이 수립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요.

지금 海外에 就業을 원하는 者를 얘기하
는 것입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海外就業希望
者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會社에서 人員이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것을 弘報를 해서 希望者를
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니까 海外開發公社에서 파
악하고 있는 數字는 없다는 말이지요?

海外就業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海外開發
公社에서 기다립시오 하는 待機就業人口는
파악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현재는 저희
가 資料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韓光玉委員 그것이 되어 있을텐데... 그
것이 왜 안되어있지요?

그리고 移住實績을 보면 斡旋移住를 보면
84年度에서부터 계속 上昇勢에 있는데 84年
度부터 88年度까지 永久移住는 계속 줄고
있네요. 이것이 어떤 이유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斡旋移住는 늘어나고 緣故移
住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떠한 이유일까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현재 樹民國
政策이 單純勞動人力이라든가 財產이 없는
그런 居住希望者에 대해서는 統制와 制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라든가 濠洲에는
대개 技術이 있고 또 經營能力이 있는 사
람들만 選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
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本委員이 入手한 소위
特別監査結果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
니다.

海外移住融資金의 國庫支援現況을 보면 84
年度부터 88년까지 약 23億 豫算에 22億
執行을 했는데 그 중에서 回收하지 못한
額數가 얼마이며 未回收者에 대한 措置는
어떻게 했는가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對答해주세요.

○韓國海外開發公社管理本部長職務代理 宋在憲
88年度까지 6億500萬원을 還收하도록 되어
있는데 金額을 還收를 했습니다.

未收금이 현재 없습니다.

○韓光玉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海外開發公社에서 附帶事業이
아닌 一般事業體의 勤勞者에 대한 身體檢査
도 합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현재 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원래 身體檢査를 하게 되어
있나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定款에는 현재 없습니다.

84年3월에 勞動部の 認可를 받아서 현재 施行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勞動部の 認可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세한 質問이 있겠습니다마는 根本적으로 海外開發公社가 冒頭에 말씀을 드렸지만 粉骨碎身하는 자세로서 業務를 執行하지 않는 한 계속 海外開發公社의 存在 價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여러 刷新方案도 익히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案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實行이 되어서 海外開發公社가 政府 各部處 또는 傘下機關 어느 位置이든지 자기의 확고한 몫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하루 빨리 바라마지 않습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新民主共和黨所屬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한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85年度에 24名이 「온두라스」에 投資移民한 사실이 있지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예.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 분들이 斡旋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실지로 일을 하려고 現地에 가 보니까 도저히 適應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돌아 왔지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예. 그렇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現地適應이 안되는 것을 開發公社에서 알면서 그저 移民斡旋만 해준다는 이런 任務만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인지는? 現地에 가서 직접 適應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生活할 수 있도록 이렇게 指導를 해서 보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社長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알아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대개 압니다. 具體的인 것을 報告드리기 위해서는 實務者에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實務者報告하기 전에... 그런데 이분들이 되돌아 와 가지고 財産上 損害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예.

○金炳龍委員 거기까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갔다가 現地適應이 안된다고 社長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財産上 이렇게 損害를 보았는데 開發公社에서 무엇인가 補償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것을 建議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對策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우선 제가 간략하게 報告드리도록 하고 追加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投資移住는 86年2월에 「칠레」에서 貿易業하는 이무웅씨가 「온두라스」投資移住案을 가지고 來訪을 해서 저희 會社에 打診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書類檢討를 해서 일단 그 事業이 타당한 것으로 判斷을 해서 20世帶를 進出할 것을 決定을 했습니다.

進出할 당시에 希望者들을 現地에 보내서 그 事業의 妥當性과 經濟性을 확인시켜서 本人들의 의사를 尊重해서 決定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무웅이라는 사람하고 移住希望者들하고 利益配當上에 異見이 있어 가지고 11世帶는 歸國을 했습니다. 나머지 9世帶 중 4世帶는 「온두라스」에서 第3國으로 進出해버렸고 현재 5世帶가 남아서 轉業을 해서 居住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公社로서는 「칠레」에 있는 支社長을 現地에 보내서 狀況을 파악을 하고 이무웅이라는 사람을 法에 告訴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에는 民主正義黨所屬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李康熙委員입니다.

하나만 質疑가 될지 아니면 우리 政府部處의 어떤 判斷基準에 의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海外開發公社社長님이 아니고 部處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政府의 各 部處가 다같이 통일되고 國家를 위해서 行政業務를 보는 것은 어느 部處가 됐든 異議가 없습니다. 그런데 海外開發公社가 豫算을 보더라도 外務部하고 勞動部하고 國庫問題가 있는데 兩個 部處에서 하는데 오히려 外務部の 國庫豫算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外國의 땅을 사는 문제라든가 移住民問題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外務부에 속하는 문제인데 지금 業務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外務부로 왔다가 한창 海外에 勤勞者가 進出할 때 勞動部로 왔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狀況으로 보서는 外務부로 가야 業務를 效果的으로 能率的으로 進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勞動部次官님이 계시니까... 여기 있으면 勞動委員會가 조금이라도 部處도 나올텐데 公式的인 政府라는 입장의 業務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애초에 外務部 또는 保社部 業務 또 勤勞者가 海外에 進出하니 勞動部 業務 이렇게 복합돼서 結果的으로 勞動部傘下의 機關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決定이 돼서 勞動部傘下 機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出資問題라든가 運管問題가 지금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外務部和 勞動部間의 문제가 있고 또 機能이 重複이 돼 있기 때문에 機能調整方案을 檢討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公益事業을 주로 하는 國家機能代行機關으로 轉換하려고 해서 繼續事業으로서는 政府間 契約에 의한 海外就業이라든가 海外移住라든가 海外人力情報蒐集 普及 또 海外就業者 教育 訓練 그리고 나머지 身體 檢査라든가 旅行社라든가 이런 것은 民間人에게 移行하려고 하고 外務部하고 勞動部間의 機能調整問題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檢討를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海外開發公社社長님께서도 業務를 效果的으로 執行하시는데 어느 部處의 屬性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建議도 하시고 判斷도 하시서 各 部處間의 協議를 要求하시서 效果있는 方向으로 執行되기를 부

탁드립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알겠습니다.

○李康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委員長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報告書에 明示된 바와 같이 海外開發公社의 設立目的은 海外人力進出 擴大에 있습니다. 또 主要事業 역시 海外就業事業입니다. 그런데 昨年度 國政監査 때도 지적이 누누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設立目的과 主要事業을 遂行하는데 海外開發公社가 本然의 機能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아직까지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두면서 「페이지」 보세요.

事業實績에 85年度 86年度 이후 海外進出人員이 下落趨勢에 있습니다. 今年度の 目標가 3,740名인데 890名이 나가서 24%에 불과한데... 그 다음에 “나”項의 事業與件이라고 해서 中東의 景氣沈滯로 人力需要가 減少되고 있다 原因指摘은 단순히 이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海外企業들이 韓國人을 쓰기 보다는 오히려 第3國人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原因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저도 委員長님 의견에 同感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第3國 人力 보다는 賃金이 비싸고 또...

○委員長 金令培 현재 原因만 묻고 있습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그 原因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中東의 特殊景氣가 없어졌고 人件費가 올라 가지고 競爭力이 弱화되었고 주로 두가지 原因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데 여기에 海外進出企業이 韓國人 보다는 오히려 第3國人 말하자면 賃金이 싼 第3國人 人力을 選好하는 통에 이렇게 下落趨勢다 이 내용은 報告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아까 明示는 인했습니다마는 口頭報告는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안 했습니다.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내가 지적한 것을 인정합니까?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潤壽 예.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묻겠습니다. 海外進出한 우리 企業體數가 몇 個입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勞動部에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國內進出業體는 62個 業體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중에 總 62個 業體가 雇傭하고 있는 勤勞者 總數가 몇 名입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현재 韓國人을 總 雇傭하고 있는 것은 9萬2,000名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總 雇傭하고 있는 勤勞者數가 몇 名인데 그 중에서 韓國人이 몇 名 몇 %이며 第3國人이 몇 名으로서 몇 %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것은 職業安定局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좋습니다.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職業安定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進出業體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業體가 62個 業體입니다. 그 중에서 外國人 雇傭現況을 보면 進出業體 62個 業體에서 總 雇傭하고 있는 勤勞者數는 7萬743名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勤勞者가 2萬6,531名이고 外國人 雇傭이 4萬4,212名입니다. 그래서 外國人 雇傭比率이 62.3%를 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또 韓國人은 몇%입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韓國人은 約 38%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이 數値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第3國人을 62.3%를 雇傭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물론 企業人들은 이익을 目的으로 하니까 可及的이면 低賃金 勤勞者를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政府 특히 勞動部는 勞動政策이 됩니까?

첫째 雇傭의 增大 아닙니까? 그 다음

雇傭의 安定이 아닙니까? 간단히 두 가지예요. 그러면 雇傭增大次元에서 海外開發公社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韓國人을 38% 밖에 쓰지 아니하고 外國人을 62%나 쓰고 있으니가 海外人力進出 下落趨勢의 原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報告에서도 이런 것이 빠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터놓고 여러 委員님들이 알아가지고 공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문제가 擧論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이 勞動委員會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政策 立案의인 次元에서 立法을 해서라도 海外進出企業者들에게 一定比率 이상은 韓國人을 반드시 雇傭하도록 立法化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次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根本的인 趣旨에 대해서는 委員長님 말씀에 同意를 합니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賃金하고 直接的인 函數關係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政策開發的인 次元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깊이 연구해 보세요. 내가 現地에 가서도 알아보았고 현재도 많이 알아보건데 이것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韓光玉委員 그런제 政策的인 문제니까 한 가지 물겠는데 이제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外國에서 우리나라 企業體에 工事を 發注할 적에 自國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입장에서 自國內의 勤勞者들을 몇 % 이상 써야 된다는 어떤 契約書上에 條項이 있는가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勤勞者를 많이 雇傭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알아보아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양해해 주신다면 擔當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外國人力을 쓰는데 있어 우리나라 自國人力의 雇傭比率은 없습니다. 그리고 參考的으로 外國의 人力進出事件과 展望에 대

해서 현재 減少되는 원인이 委員長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類型이 있습니다. 그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進出受注가 계속해서 아주 減少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82年度에는 受注가 133億弗까지고 22萬1,000名이 나갈 수 있었는데 87年度에는 17億弗 밖에 受注가 안되어가지고 11萬5,000名 88年度에는 16億弗로 해서 約 10萬名 현재는 2億弗 밖에 안되기 때문에 受注가 9萬名정도 線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中東地域의 自國化政策이 요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自國受注率이 81年度에 10.3%이었던 것이 85年度에는 36.5% 86年度에는 41.1%로 自國人力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보면 外國에 의존하는 人力政策이 84年度에는 65%이던 것이 86年度에는 61.3% 90年計劃은 自國人力依存度를 50.3%로 지금 計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自國人的 義務雇傭率을 보면 「사우디」는 30% 「이라크」은 현재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進出業體 雇傭 低賃金... 東南亞의 低賃金 外國人 勤勞者들도 雇傭比率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2年度에는 24.1% 87年度에는 49.7% 88年度에는 57.3% 89年度 3月 현재는 62.3%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外國人을 雇傭하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委員長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海外에 나가 있는 勤勞者들의 實態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짐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심각한 점이 많습니다. 雇傭問題가 그렇고 거기에 作業環境 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는 本 勞動委員會가 調查團을 構成해서 實態를 調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의 意見으로 얘기해 둡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韓國海外開發公社의 現況報告와 이에 대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韓國勞動研究院의 現況報告를 듣겠습니다. 院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報告內容이 같은 것같은데 研究社業績과

研究事業推進狀況만 해 주시되 重點的으로 要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韓國勞動研究院의 裴茂基院長입니다.

韓國勞動研究院의 業務에 대해서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88年 研究事業實績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報告順序

- 一般現況
- '88研究事業實績
- '89研究事業推進狀況

一般現況

1. 沿革

- 88. 4.11: 設立準備委員會 開催
- 88. 5. 9: 財團法人 設立許可
- 88. 6.30: 法人設立登記
- 88. 8.25: (財)韓國勞動研究院 開院
- 88.12.31: 韓國勞動研究院法 公布(法律 第4078號)
- 89. 1. 9: (財)韓國勞動研究院의 모든 권리와 義務를 韓國勞動研究院이 承繼
- 89. 2.21: 韓國勞動研究院法에 의한 法人 設立登記
- 89. 3.27: 韓國勞動研究院法 施行令 公布 (大統領令 第12667號)

2. 設立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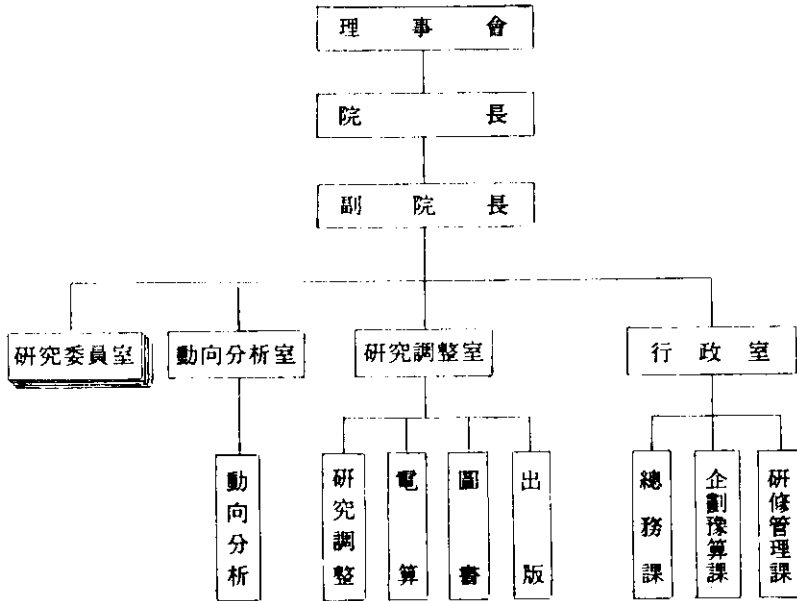
勞動關係 諸問題를 體系的으로 研究 分析함으로써 合理的인 勞動政策 開發과 勞動問題에 관한 國民一般의 認識 提高에 寄與

3. 任 務

- 勞動關係 諸問題에 관한 調査 研究와 政策代案의 開發
- 勞動에 관한 情報 및 資料의 蒐集 發刊 普及
- 勞動問題에 관한 다른 研究機關과의 共同研究
- 勞動關係 研究用役의 委託 및 受託
- 勞動에 관한 教育 研修 및 弘報

4. 機構 及 定員

○機 構



○定 員

總 計	院 長	研 究 職							行 政 職					
		小 計	副院 長	先任研究 委 員	研 究 委 員	主 任 研究員	研究 員	研 究 助 員	小 計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67	1	52	1	6	10	6	10	19	14	1	3	2	2	6

5. 任員 及 研究陣

○任 員

職 位	姓 名	動 務 處 及 職 位	備 考
理 事 長	沈 泰 植	韓國勞動法學會 會長	選任
理 事	裴 茂 基	韓國勞動研究院 院長	"
理 事	洪 三 憲	韓國勞動組合總聯盟 事務總長	當然
理 事	李 柱 完	全國遞信勞動組合 委員長	選任
理 事	金 樂 冀	全國聯合勞動組合聯盟 委員長	"
理 事	尹 能 善	韓國經營者總協會 常任副會長	當然
理 事	車 相 弼	大韓商工會議所 常勤副會長	選任
理 事	韓 在 烈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諮問委員	"
理 事	韓 利 憲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局長	當然
理 事	朴 雲 緒	商工部 產業政策局長	"
理 事	具 然 春	勞動部 勞政局長	"
監 事	徐 相 龍	西江大學校 經商大 教授	選任

○ 研究陣(研究委員級 以上)

職 位	姓 名	年 齡	最 終 學 歷 及 學 位	主 要 經 歷
副院長	朴恒求	41	Minesota大 經濟學博士	KDI先任研究委員
研究委員	金兌基	32	Iowa大 經濟學博士	Iowa大 講師
"	朴基性	30	Chicago大 經濟學博士	서울大 講師
"	朴英凡	32	Cornell大 經濟學博士	KIET研究委員
"	李 銑	38	Hawaii大 經濟學博士	職業訓練研究所 首席研究員
"	李光澤	40	Bremen大 法學博士	獨 Bremen大 勞動政治研究所 責任研究員
"	李原德	37	Boston大 經濟學博士	忠南大 教授
"	崔榮起	36	Texas大 經濟學博士	
"	朴明秀	34	Northwestern大 經濟學博士	延世大 講師
"	鄭寅樹	36	New York州立大 經濟學博士	
"	柳吉相	37	Hawaii 經濟學博士	

6. 歲出豫算

(單位：千圓)

款	項	豫 算 額		增 額
		'89豫 算	'88豫 算	
計		1,877,318(100%)	828,165(100%)	1,049,153
I. 人 件 費	小 計	597,474(31.7%)	199,518(24.1%)	395,956
	1. 給 與	507,328	161,812	345,516
	2. 研 究 活 動 費	51,240	25,750	25,490
	3. 退 職 給 與 充 當 金	29,763	9,642	20,121
	4. 國 民 年 金 負 擔 金	7,143	2,314	4,829
II. 研究事業費	小 計	743,432(39.6%)	116,490(14.1%)	629,942
	1. 研 究 事 業	427,432	113,490	313,942
	2. 研 究 關 聯 事 業	122,201	3,000	119,201
	3. 研 究 支 援 事 業	193,799	0	193,799
III. 經常運營費	小 計	505,950(26.9%)	512,157(61.8%)	△6,207
	1. 基 本 公 課 金	21,104	12,714	8,390
	2. 資 產 管 理 維 持 費	306,605	413,517	△106,912
	3. 一 般 運 營 費	145,265	66,470	78,795
	4. 福 祉 厚 生 費	32,976	19,456	13,520
IV. 豫 備 費		32,462(1.8%)	0	32,462

(다음 「페이지」에 계속)

(報告)

'88研究事業實績

○研究課題

研究課題名	研究內容 및 推進實績	向後推進計劃
1. 勞動動向分析 李原德 朴基性 黃仁泰 外 2名	· 「分期別 勞動動向分析」 發刊 國內外 勞動市場 및 勞使關係 動向과 展望을 收錄	· 繼續事業
2. 賃金引上決定 論理와 政策 課題 朴英凡	· 賃金引上決定과 關聯된 諸般論理와 關聯變數와 指標解釋上的 問題 諸般變數間的 相互關係 등을 考察함으로써 賃金決定過程에서의 效率性 提高	· '88年5月末 報告書 發刊
3. 團體交渉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李 統 金洵岫	· 主要業種別 團體交渉의 過程과 그 結果에 대한 實態調査를 基礎로 보다 效率的인 團體交渉이 推進되기 위한 改善方案 提示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4. '87, '88勞使紛糾의 綜合研究 金兌基 李珏範 金章鎬 曹尤鉉	· '87 '88년의 勞使紛糾의 全般的 樣相 發生過程 勞使紛糾의 進行過程 및 結果 紛糾가 지나는 經濟·社會的 意味 등에 관한 綜合 分析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5. 紛爭調整制度 改善方案 金兌基 李永熙	· 實態調査를 통해 現行 紛糾調整制의 制度的 運營實態上的 諸般問題點을 導出하고 改善方案을 檢討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6. 勞動組合 構造調査 研究 朴基性 朴德濟	· 勞總 및 產別聯盟을 中心으로 構造的 特性 活動內譯 運營實態 등을 面談 및 資料分析을 통해 調査研究하여 勞動問題 理解를 위한 基礎資料로 提供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 '89年 繼續 事業으로 單位勞組의 構造 調査 繼續
7. 勞動行政의 中·長期 發展方案 研究 李 統 朴世逸	· 産業化와 勞使關係與件變化에 따라 새로운 與件에 걸맞는 發展的인 勞動行政體制 構築을 위한 中·長期制度 改善方案 檢討 · 報告書 發刊('89年 1月)	

研究課題名	研究內容 및 推進實績	向後推進計劃
8. 勞動法 改正關聯研究 金亨培 尹性天 林鍾律	· 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등 集團의 勞使關係關聯 法規중 改正 論議事項에 대한 學界의 意見을 檢討하고 政策協議會를 통해 各界의 意見收斂 · 政策協議會 開催('88年9月) 및 報告書 發刊	
9. 最低賃金制 運營支援 研究 朴英凡	· 「分期別 勞動動向分析」에 '89年 最低賃金制에 대한 解説 收錄	· '89年 事業으로 生計費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課題 推進
10. ILO條約과 國內勞動法 比較研究 李興在	· 主要 主題別로 ILO條約 및 國內勞動法을 比較·分析함으로써 國際勞動基準과 現行 國內 勞動法과의 差異 앞으로 ILO에의 加入에 對備하여 事前準備事項 등을 檢討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11. 勞動教育의 評價와 發展方案 研究 金秀坤	· 現行 勞動教育의 實態와 그 效果를 評價하고 勞使關係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勞使當事者의 關聯知識 普及擴散을 위한 方案 檢討	· '89年5月末 報告書 發刊

(報告中斷)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書面으로 보아도 되겠는데 요.

이상 간단히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外部用役事業

研究課題名	研究內容 및 推進實績	向後推進計劃
1. 自動車工業 勞使關係 現況과 課題 崔榮起 朴來榮 外 3名	· 우리나라 自動車工業의 勞使關係 現況과 外國의 自動車工業 勞使關係 變遷史 등을 檢討 分析하여 自動車工業 勞使關係 賃金 交涉의 發展을 위한 方案 摸索 · 政策討論會 開催('89年4月) 및 報告書 發刊	
2. 勤勞福祉指標 測定에 관한 研究 李原德 鄭進浩 外	· 雇傭 賃金 勞使關係 등 勤勞福祉 關聯 諸指標를 網羅하여 勤勞福祉指標를 開發하여 1970~87年 사이의 指標를 作成 ('89年2月)	

'89研究事業推進狀況

1. '89研究事業 目標

—勞動動向分析 雇傭 및 人力開發 賃金 勤勞條件 勞使關係 勞動法制 所得分配 社會保障 등의 7個部門과 特殊課題 部門으로 區分하여 總 25課題 研究事業 推進

2. 部門別 研究事業

가. 勞動動向分析

○勞動動向分析과 展望

—國內 및 海外的 雇傭 賃金 勞動時間 勞動生產性등의 主要勞動市場 變數와

—勞動組合 團體交涉 勞使紛糾 등 勞使關係 關聯事項을 體系의으로 分析하고 短期政策課題 論文을 分期別 勞動動向分析으로 發刊

○勞動關聯 「데이터·베이스」 構築

—勞動關聯 主要指標 開發 普及
—勞使交涉과 勞動政策 開發의 基礎 資料 提供

○勞動市場 模型開發

計量模型의 開發을 통해 雇傭 失業 賃金 등 勞動關聯 主要變數와 豫測 力 提高

○勤勞福祉指標 開發

勤勞福祉 推移 分析을 통한 政策樹 立 基礎資料 提供

나. 雇傭 및 人力開發

○勞動市場의 中·長期 變化展望과 政策課題

—勞動供給 雇傭構造 등의 勞動市場 與件變化를 中·長期 視覺에서 展望하여 政策課題로 提示

다. 賃金 및 勤勞條件

○賃金構造實態 分析

—賃金構造를 業種別 規模別 職種別

등의 諸般視覺에서 分析하여 賃金 構造實態에 대한 理解提高

○賃金體系 및 支拂制度의 實態調査 研究

—企業의 賃金慣行의 實態分析과 制度改善을 위한 代案을 提示

○勞動時間의 實態와 政策課題

勞動時間의 現況檢討 및 長時間 勞動의 經濟的 法制的 背景과 外國의 勞動時間등을 分析後 勞動時間에 관한 政策課題 導出

○企業福祉制度의 實態와 課題

—企業內 福祉制度에 대한 勤勞者의 要求內容을 檢討하여 追後 企業內 福祉制度 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導出

○最低賃金制의 影響에 관한 研究

—最低賃金制의 效果를 賃金 雇傭 등 諸部門의 實查를 통해 分析하여 最低賃金制가 運用되어야 할 方向을 檢討

○生計費 模型開發 研究

—生計費 推定結果를 提示하여 '90年 最低賃金水準 決定을 위한 參考資料로서 提供하고 賃金交涉의 關聯 資料로 活用

라. 勞使關係

○團體協約 分析研究

—業種別 團體協約의 類型을 分類 提示

—諸外國의 團體協約의 內容과 比較 檢討함으로써 團體協約에 관한 廣 範圍한 基礎資料 提示

○勞動組合의 構造와 實態에 관한 研究

—單位勞動組合의 運營實態 產別聯盟 및 中央組織과의 實質的 關係 등

을 檢討하여 勞使關係의 現實把握을 위한 基礎資料로 提供

○ 罷業의 經濟的 分析

罷業의 實態 期間 發生要因을 事例 調査·分析함으로써 罷業으로 인한 社會的 費用 減少를 위한 諸般方案을 導出

○ 公共部門의 勞使關係 實態와 政策課題

公共部門의 勞動運動의 擴大와 勞使關係의 特殊性을 檢討하고 그 實態를 分析

○ 運輸產業의 勞使關係 實態와 課題

- 勞使紛糾가 多發인 運輸產業(택시)에서의 勞使關係를 長期的인 視角에서 安定化시키기 위한 諸般 政策課題 提示

마. 勞動法·制度

○ 勤勞基準法 研究

勤勞基準法의 諸規程의 法理的 理解 및 規定의 執行이 勞動市場의 慣行과 勞使關係 變化에 符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代案 提示

○ 經營參加制度에 관한 研究

經營參加制度가 우리의 勞使關係 與件에 보다 效率的으로 收容될 수 있는 方案 提示

○ 外國 紛爭調整制度의 比較 研究

先進國의 紛爭調整制度를 比較 分析하여 民間部門 및 公共部門의 利益紛爭 등에 대한 類型別 代案과 制度的 整備方案을 摸索

○ 不當勞動行爲制度 研究

不當勞動行爲의 最近趨勢 및 類型分類 政策課題 등

○ 爭議行爲의 範圍에 관한 研究

爭議行爲의 對象 限界 正當性과 團

體行動權의 行使와 制限에 관한 法理的 檢討

바. 所得分配 및 社會保障

○ 限界賃金 勤勞者의 家計經濟 分析
低賃金階層 勤勞者의 生活實態와 消費構造 등 家計經濟의 現實과 時系列 變化에 대한 檢討 分析

○ 雇傭保險制度의 國際比較와 課題

主要國의 失業 또는 雇傭保險制度의 實態 運營上の 問題 등을 抽出하여 追後 雇傭保險制度의 導入에 對備

사. 特殊課題

○ 勞使關係 事例研究

○ 日本의 勞使關係 發展史 研究

○ 勞使關係 國民意識 調査研究

○ 勞動統計의 實態와 改善方案 研究

3. 研究關聯事業

○ 各種 政策協議會를 開催하여 勞使關係의 發展을 摸索하고 바람직한 勞使關係 定着을 위한 雰囲気 造成

- 賃金交涉에 관한 討論會: 2~3月

· 서울 釜山 仁川 大邱 光州 등 5 個地域

- 自動車工業 勞使關係 發展을 위한 討論會: 4月

- 爭議調整制度에 관한 討論會: 4月

- '87 '88 勞使紛糾 綜合研究에 관한 討論會: 4月

- 濠洲의 勞使關係에 관한 討論會: 5月

- 勞動組合 發展에 관한 討論會: 7月

- 開院記念 세미나 "主要國의 勞使關係 定着 經驗": 8月

- 勞使關係 國際세마나(ILO-아시아 太平洋地域事務所 勞總 經總 共同主催): 9月

○ 賃金 및 團體交涉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參考資料 開發 普及

- 「賃金關聯 統計資料集」發刊:2月
- 「團體協約 作成方法과 事例」發刊:5月
- 生計費模型 開發 및 推定結果 普及:
6月
- 「分期別 勞動動向 分析」發刊:每分期
- 學術誌 「韓國勞動研究」發刊:8月
- 海外勞使關係資料 翻譯:日本外 1種

○勞使關係 高位指導者 研修過程

- 目的:勞使關係 一翼을 擔當할 專門
家를 養成
- 對象:勞組指導者 企業의 高位幹部
關聯高級公務員 등 30名
- 期間:89年 下半年 6個月間(夜間)

○學術 및 情報交流

- 國內勞動關聯 學術團體 支援과 協力
體制 構築
- 院外 人士招聘 세미나 開催:20回
- 勞動關聯 國際會議 參加:10回
- 海外勞動關聯 專門研究人士 招請:5回

4. 其他 研究院 運營

○研究陣 補強

- 博士級 新規採用 豫定:5名(3名 既
採用)

○研究施設確保

- 研究陣의 補強에 따른 廳舍賃借面積
擴充:561→700坪
- 勞動關聯 圖書資料의 蒐集 體系化로
勞動關聯 圖書資料의 國內 中心機關
으로 育成

○李海瓊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研究委員經歷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美國 經濟學博士분들이신데 앞으로 勞動問題가 물론 經濟的 觀點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社會經濟的 觀點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들이 浮刻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既存의 다섯 名중에서 세 名은 採用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社會學科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觀點에서 말씀드리

는 것이 아니고 事案의 성격이 社會經濟的 側面이 浮刻될 수밖에 없는 勞動問題 時點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專功分野를 그런 쪽으로 고려하셔서 採用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간단히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社會學分野의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採用하기 전에 먼저 研究院으로 불러다가 소위 「잡 세미나」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社會學科出身으로 學位를 가진 사람을 두 사람을 採用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저희들 事情과 맞지가 않아서 採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자리에 대해서는 日本에서 勞使關係를 공부한 「백 그라운드」와 또 社會政策專功者 또 社會學을 한 사람 이런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李委員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어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統一民主黨所屬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研究院이 純粹學問研究를 하지 말라는 法도 없고 그것도 의당 하시겠지만 특히 政府出損機關인 만큼 政府의 勞動政策 開發에 상당히 寄與할 부분에 관한 연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짧은 期間이라 뚜렷하게 많이 蓄積된 것은 없겠지만 그 동안에라도 이 研究院에서 勞動部로부터 政策開發을 위한 研究課題를 흑시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 研究結果가 政策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또 꼭 勞動部로부터 연구를 委囑받지 않았다 한지라도 研究所自體에서 설정한 研究課題中에 政策的 代案이라고 생각되어서 政府에 建議 또는 建議에 준하는 研究結果 提供으로 政策 채택되었거나 반영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제를 부여받아서 연구했던 自發的 研究이든 소위 政策代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낸 것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 한지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거기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昨年 8月下旬에 문을 열어서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盧委員님 質疑하신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中長期 勞動行政機構改善 方案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勞動行政 需要가 뭐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機構組織表도 만들어 보고해서 그것을 勞動部에서 行政委에까지 연결시켜서 다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紛爭調停制度改善方案研究에서는 주로 勞動委員會의 기능에 대한 建議事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中間報告때부터 勞動部에 연락을 해서 반영이 다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勤勞福祉指標開發事業을 勞動部로부터 委囑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年初에 그것을 마쳐서 勞動部에 報告書を 제출했고 言論에 일제히 다 報道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勤勞福祉指標를 통해서도 다소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今年度事業으로는 勞動統計改善方案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지금 今年度 광범위한 24個 研究課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전부 直 間接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盧武鉉委員 質問의 뜻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 했느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궁금한 것은 具體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어느정도 채택되고 반영되었는지? 말하자면 研究所에서 개발한 政策代案을 勞動部에서 얼마만큼 존중해서 채택하는가? 그것은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요. 勞動部가 얼마만큼 존중해 주느냐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얼마만큼 研究所의 研究結果가 현실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現實的 代案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相對的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우 合理的인데도 불구하고 勞動部에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勞動部는 정말 진지하게 존중할 의사가 있는데 現實的 妥當性이 없는

研究結果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만한 具體的인 것들을 물어본 것입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추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例컨대 中長期 勞動行政組織機構 改善方案中에서 勞動部에서도 이미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産業安全局이 독립해서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非農業部門의 統計를 勞動部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部處에서는 적어도 統計를 담당하는 室이 보통 局단위입니다. 그런데 勞動部에서는 課單位로 되어 있기 때문에 勞動統計課를 가령 勞動統計局으로 올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行政委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때때로 具體的인 연구와 관계없이 研究院에서 勞使關係의 現況과 과제라든지 하는 이런 이름으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포지션페이퍼」를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勞動部에 항상 보내가지고 政策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아까 紛爭調停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것은 國會勞動委員會에 관한 法改正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하겠습니까?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그것은 제가 지금 研究者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現行勞動委員會를 보강하고 獨自性을 늘리고 좀 승격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소 아마 지금 73名인가 人員이 보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여기 發刊되는 冊子是 常委委員들한테 하나씩 보내줍니까?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아까 말씀드린 勞動行政機構 改善方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은 전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 研究事業은 지금부터 冊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보내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아까 말씀하신 勞動部에 하는 政策建議같은 것도 委員들의 知識을 보충해 주는 뜻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예. 알겠습니다.

(金命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盧武鉉委員 그 다음에 근래 굉장히 심각했던 勞動問題에 대해서 動向을 분석해서 내겠습니다마는 좀더 根本的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政策代案같은 것은 앞으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제시지 모르겠습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사실 저희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과제가 따지고 보면 根本的인 문제와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雇傭같은 것도 今年度 事業은 가령 自動化와 雇傭 高齡化와 雇傭 女性化와 雇傭 高學歷化와 雇傭 3次 産業化와 雇傭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고 賃金에 대해서도 綜合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勞動組合 勞使關係 法改正問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現實的인 政策代案開發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밖에 더 깊이 물으면 研究課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기알부하는 것 같으니까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勞動運動의 現實的인 흐름이 단지 단순한 賃金의 수준이라든가 하는 그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심각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政治 經濟 社會에 있어서 어떤 社會 經濟的인 土臺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그것에 대한 對應方案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안타까운 解決課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연구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그쪽은 깊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積極的으로 우리가 어떤 對應策을 냈다든가 그런데까지는 아직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하여튼 저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研究所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勞動部行政이 이루어졌고 社會的인 與件도 勞動統制政策이 一般的으로 유일한 勞動政策으로 있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政治的인 여건도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더군다나 研究所도 하나 생겼으니까 올해처럼 勞動部의 勞動政策이 마구잡이로 나가버리고 또는 政府內에서 勞動部의 勞動政策에 대한 어떤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一方的으로 公安이라는 관점 및 一方通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研究所가 기여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우리나라에 이런 研究院이 발족이 되어서 정말 큰 一役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 文案에 보면 勞動關係 주로 이것을 연구하는 機關 또는 政策代案을 연구하는 任務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任員選任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理事會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理事會가 任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設立推進時에는 設立推進委員會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理事會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研究委員들이 있는데 大學校教授도 研究委員으로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兼職입니까?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과거경력입니다. 그리고 완전 專任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研究委員이 적어도 博士學位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 한데 연구를 하려면 혼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美國이나 佛蘭西나 이런 나라같이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研究委員이 한분이 계시면 적어도 全國에서 일어나는 例컨대 釜山이라든지 馬山이라든지 仁川이라든지 일어나는 사건 또

現地の 勞使間の 問題 이런 것을 委員이 직접 나갈 수 없으니가 보좌하는 분들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오면 연구하는 委員이 검토를 하고 또 討議를 해서 뭔가 政策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研究委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섯명정도 제셔도 그 밑에 보좌하는 분은 다섯명은 제셔주어야 됩니다. 全國으로 돌아다니면서 實務적으로 취급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李海瓚委員도 지적했지만 法學博士가 한분 계시고 전부 經濟學博士들인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어떤 事業場에서 勞動爭議가 발생했다 그래서 罷業을 한번 해가지고 그 會社가 正常化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年 내지 3年잡니다. 그러면 經濟적으로 얼마만큼 손해가 오느냐 이것입니다.

또 勤勞者에게는 얼마만한 손해가 오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現地에 가서 분석을 해 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지금 院長께서 自動車系列會社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시고 懇談會를 하시다 그랬는데 自動車系列會社들이 지금 100% 다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自動車 한臺가 완성되려면 한 250個 業體에서 부품이 納品이 되어야만이 그 自動車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스위치 하나만 없어도 出庫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系列會社에서는 罷業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本工場에서 自動車가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現地에 가서 직접 그분들과 對話를 하면서 뭔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서로가 罷業까지 돌입 안하면서 勞使가 원만하게 서로가 양보해서 會社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이런데 더 좀 치우쳐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例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釜山에 있는 造船會社가 그때 40日間 罷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年동안을 造船會社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서로가 합의되어서 正常操業은 했지만 완전히 그 會社가 本軌道에 오

르는데 3年이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研究院이 발족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勞動委員으로서도 기대가 큼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 참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전부 이것 經濟學博士만 갖다 놓고 經濟研究한 사람들만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博士아니라도 勞動分野에서 박사이상 가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博士學位야야만 研究員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民主正義黨所屬 李台燮委員 간단히 質疑하십시오.

○李台燮委員 늘 제가 궁금하고 관심있던 문제가 失業率 計算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失業率이 어떻게 算定이 되고 外國 예를 들면 美國이다 日本이다 歐羅巴 나라들의 失業率 計算하는 방법과 어떤 差異點이 있는가 그런 데 대해 늘 궁금하게 생각해서 專門家가 있으면 나한테 설명을 해 주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테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研究를 해서 우리나라 失業率 計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勞動關係指標에 대한 研究를 누가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茂基 우리나라의 失業率 計算은 1日에 1時間 이상 收入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就業者라고 합니다. 失業者는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하는 사람입니다. 昨年의 예를 들어 25%가 失業者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ILO에서 추천을 하고 美國이나 日本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1주일에 1時間 이상 일한 사람을 就業者라고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만 10時間이나 20時間 가령 18時間 미만 就業者라고 해도 그것은 失業率의 0.3「포인트」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國際적으로 比較가 가능하고 ILO에서도 勸告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李台燮委員 그 關係資料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茂基 經濟企劃院에서 經濟活動 人口를 調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韓國勞動研究院에 대한 質疑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모두 끝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 두면서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勞動部傘下 機關中 아직 業務報告를 못한 機關이 있는데 그것은 中央勞動委員會입니다. 이 中央勞動委員會의 報告는 오는 24日 全體會議 때 報告를 받고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日부터 오는 23日까지는 4日間 法案審査小委員會와 請願審査小委員會의 活動期間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小委員會에 繫留中인 全體會議에 차질없이 上程 報告토록 小委員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51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瓊 熙	李 康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瓊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 劃 管 理 室 長	鄭 東 佑	
職 業 安 定 局 長	金 濟 憲	
勞 動 保 險 局 長	姜 斤 熙	

○其他參席者

勤 勞 福 祉 公 社 長	沈 大 燮
韓 國 海 外 開 發 公 社 長	全 潤 壽
管理本部長職務代理	宋 在 憲
韓國勞動研究院院長	夏 茂 基